

이성교제를 하는 십대여학생의 성접촉과
자아존중감 · 자기주장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이 선 경

이성교제를 하는 십대여학생의 성접촉과 자아존중감 · 자기주장의 관계

지도 장순복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0년 12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이 선 경

이선경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張 順 福 

심사위원 김 선 아 

심사위원 김 주 형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0년 12월 일

감사의 글

마치 긴 터널을 통과하여 밝은 빛을 본 듯합니다. 이런 빛을 보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의 얼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씨실과 날실이 되어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소박한 결실의 기쁨을 이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를 학문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일일이 가르치심을 시작으로 하여 이러한 논문이 나오기까지 저와 함께 고민해 주시고, 지도, 격려하여 주시며, 일상의 모범이 되어주신 장순복 교수님의 사랑과 보살핌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의지할 수 있는 교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즐거운 일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김선아 교수님의 예리하고도 섬세한 지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통계적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언제 어느 때나 반겨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용기를 북돋아 주신 김주형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책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유명한 교수님의 얼굴을 직접 뵈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영문초록의 지도까지 직접 받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김미자 교수님께도 이 무례한 제자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교육 성상담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여러 기회를 주시고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신 구성애 선생님과 청소년을 위해 늘 깨어있는 ‘내일 여성센터’의 김영란 선생님, 김성아 선생님 외 상담소 식구들께 감사드립니다.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배려해 주신 충주 여성회관 관장님과 박종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끔씩 교실에 오셔서 친언니처럼 저의 논문을 봐 주시고 걱정해 주셨던 박소미 선생님, 어려운 과정에서도 나의 논문을 걱정해 준 미종이, 승은이 언니 역시 감사합니다. 항상 가까이에서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지지해 주는 나의 후배이자, 직장 선배이자, 학문적 동지인 주은이, 현주, 구민이, 경아, 미경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학교에서 우연히 만날 때마다 걱정해 주고 격려해 준 모든 연구강사님들과 조교 선생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아내로서 주부로서 너무나 부족한 저를 격려해 주고, 희생해 준 남편에게도 언젠가 고마움에 보답할 날을 기약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세상을 향한 겸손을 배우게 해 준 우리 가족의 희망, 사회와 세정이에게도 ‘엄마 일찍 와!’하는 딸들의 인사를 뒤로하고, 잠든 모습만을 바라봤던 엄마가 미안함과 고마움과 사랑을 전합니다. 부족한 며느리를 묵묵히 지켜보아 주시고 가족의 사랑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느끼게 해 주신 시부모님에게도 철부지 며느리가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늦게 공부하는 동생에게 의지가 되어준 영원한 나의 role model, 친언니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른이 훌쩍 넘어버리고 두 아이의 엄마인 딸에게 대문을 박차고 학문의 세계로 뛰어 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제가 감당해야 할 아내와 엄마로서의 빈자리를 이 못난 딸을 위해 기꺼이 대신해 주고 계시는 친정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과 함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끝으로 혼란한 성문화 가운데에서도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흔들리지 않고 밝게 살아가는 우리나라 십대여학생들, 마음의 고통 속에서도 짧은 설문지에 꺼내놓기 어려운 속내를 다 보여주신 연구 대상자님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0년 12월

이 선 경 올림

목 차

표 목 차	iii
그 림 목 차	iv
국 문 요 약	v
제 1 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문제	4
3. 연구 목적	4
4. 용어 정의	5
제 2 장 문헌 고찰	6
1. 이성교제와 성접촉	6
2. 십대여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	11
제 3 장 연구 방법	19
1. 연구 설계	19
2. 연구 대상	19
3. 연구 도구	22
4. 자료 수집	23
5. 자료 분석	23
제 4 장 연구 결과	25

제 5 장 논 의	45
제 6 장 결론 및 제언	51
1. 요약 및 결론	51
2. 제언	53
참 고 문 헌	55
부 록	64
영 문 요 약	67

표 목 차

<표 1>	각 지역별 선정한 학교수	21
<표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6
<표 3>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최종 성접촉 분포	27
<표 4>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만남 횟수에 따른 성접촉 분포 ..	29
<표 5>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자아존중감	30
<표 6>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자기주장	31
<표 7>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최종 성접촉에 따른 자아존중감 ..	32
<표 8>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최종 성접촉에 따른 자기주장	33
<표 9>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최종 성접촉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그룹간 차이검증	34
<표 10>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최종 성접촉에 따른 자기주장의 그룹간 차이검증	36
<표 11>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만남의 횟수에 따른 성접촉과 자아존중감의 평균	38
<표 12>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만남의 횟수에 따른 성접촉과 자기주장의 평균	39
<표 13>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만남의 횟수에 따른 성접촉과 자아존중감의 그룹간 차이분석	42
<표 14>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만남의 횟수에 따른 성접촉과 자기주장의 분산분석	43
<표 15>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의 그룹간 차이분석	44

그 림 목 차

<그림 1>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만남의 횟수에 따른 성접촉과 자아존중감	38
<그림 2>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만남의 횟수에 따른 성접촉과 자기주장	40

국문 요약

이성교제를 하는 십대여학생의 성접촉과 자아존중감 · 자기주장의 관계

본 연구는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십대여학생들이 이성교제 과정에서 경험하는 성접촉과 자아존중감, 자기주장과 관계를 조사함으로써 십대여학생들의 성접촉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 성접촉에 영향을 주는 사회심리적 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도된 횡단적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우리나라 대도시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인천에 위치한 7개 도시와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의 9개도 지방에 위치한 254개교에 다니는 12,733명의 십대여학생 중 이성교제하고 있거나 이성교제의 경험이 있었던 십대 여학생 6,1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일반적 사항에 관한 8문항, 성접촉에 관한 7문항, 자아존중감에 관한 10문항, 자기주장에 관한 7문항으로 총 32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0년 10월 2일부터 10월 28일까지였고, 자료수집 방법은 우편을 이용한 질문지 자가 보고법이었다. 자료분석 방법은 Window용 SPSS 10.0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범위, 도구의 신뢰도, 신체적 성접촉 정도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주장의 차이 검정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추후 검사로 Duncan method와 Scheffe method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 이성교제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접촉한 성접촉이 키스였던 여학생은 26.7%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심각한 성접촉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가슴

만지기와 성기 만지기, 성교하기는 13.4%로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성교제 과정에서 어떤 성접촉도 안한 군은 13.7%에 불과하였고 이성교제하는 여학생의 성교 경험율은 7.5%였다.

2. 성접촉이 만남의 어느 시기에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분포는 만난 첫날에 31.8%가 손을 잡았고, 어깨동무는 2-3회에 22.3%가 접촉하였다. 그 외의 가벼운 뽀뽀, 키스, 가슴 만지기, 성기 만지기, 성관계는 각각 12.8%, 12.9%, 4.2%, 1.9%, 2.3%로의 분포로 10회 이상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기 만지기와 성관계를 경험한 그룹은 만난 첫날부터 경험한 군이 1.7%로 두 번째로 많은 빈도를 보여주었다.
3. 이성교제하는 십대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의 평균값은 가능한 범위 10-40점에서 27.43 ± 4.03 이었고 자기주장 평균값은 가능한 범위 7-21점에서 17.96 ± 2.55 의 값을 보였다.
4. 이성교제시 성접촉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정도를 보면 성접촉이 진행될수록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의 평균값이 떨어졌고, 성접촉 단계에 따른 그룹간 차이가 유의하였다($p = .000$). 성접촉 행위별 유사성을 알기 위해 Duncan test를 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0.05의 검증력으로 가벼운 뽀뽀, 어깨동무, 손잡기, 성접촉을 안한 군이 한 그룹으로, 키스와 가슴 만지기가 또 다른 한 그룹으로, 성관계가 독립적인 한 그룹의 성접촉으로 나뉘어졌다. 자기주장의 경우에는 네 그룹으로 나뉘어져 성접촉을 안한 군, 어깨동무, 손잡기한 군이 한 그룹으로, 키스, 가벼운 뽀뽀한 그룹이 한 그룹으로, 가슴 만지기가 독립적인 한 군, 성관계 하기가 또 다른 독립적인 한 군으로 자기주장 점수가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5. 성접촉 경험의 시기에 있어서 만남의 횟수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의 평균값의 분포를 통하여 본 결과는 가벼운 성접촉이라고 생각되는 손잡기와

어깨동무의 경우 만남의 횟수에 따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벼운 뽀뽀, 키스의 성접촉은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 점수가 높을수록 성접촉의 개시 시기가 지연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심각한 성접촉이라 생각되는 가슴 만지기나 성기 만지기, 성관계를 경험한 군인 경우는 만난 첫날 경험한 군과 10회 이상에서 경험한 군의 자아존중감이나 자기주장정도가 2회에서 9회 사이에 경험한 군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 U shape의 현상이 나타났다.

6.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은 correlation 값이 0.155로 나왔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이루었다($p = .000$).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은 십대 여학생의 성접촉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증명되었고($p=0.000$, $p=0.000$), 여학생의 올바른 이성교제를 위한 성교육 내용으로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증진키는 프로그램 및 자기주장 훈련이 포함되어야 함과 동시에 성교육이 성접촉 경험단계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핵심 되는 말: 이성교제, 십대 여학생, 성접촉, 자아존중감, 자기주장.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여성의 성 생식 건강보건은 임신, 출산 이후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전의 청소년기의 성 건강으로부터 출발한다. 청소년기는 일생의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인 면이 성숙되고 통합되어 한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인이 되기 위한 인격 완성의 준비 시기이다. 이 시기에 필요한 주요 인격발달 과제 중 하나는 신체적 성적 발달과 성적 자아의 완성인데 이를 통해 스스로가 성적인 인간으로 사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된다(Gorden 등, 1979). 이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 이성교제이다.

우리나라 십대 청소년의 이성교제 경험률은 연구마다 차이가 있으나 약 반수의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언희, 1992; 김정옥, 1993; 김태근, 1997; 미태순, 1994; 이찬, 1996). 이성교제는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의 하나로 이성관과 친밀감 형성을 위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지속적이고 일관성있는 관계형성을 배우게 되는 긍정적 경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문화는 서구의 성 개방 풍조와 대중매체의 영향, 성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 성의 상품화, 성도덕의 혼란 및 성 정보의 범람으로 성문화가 왜곡되어 있으며, 이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청소년들이 이성교제 하는 과정에서 심각하게 표출되는데 이성교제 하는 청소년인 경우 이성교제 하지 않는 청소년보다 더 많은 성문제를 가지고 있다(김상원, 1996; 이양재 외, 1998; 안창선, 1993). 청소년들은 이성교제 과정에서 많은 성 경험을 하게 되며, 성병, 임신, 낙태 심지어 성폭력과 성희롱을 당하기도 한다(김상원, 1996). 청소년들은 이성교제를 통하여 자신의 성에 대한 호기심을 손쉽게 해결하기도 하고, 우리사회의 잘못된 성문화를 또래 이성친구에게 파급하기도 한다. 십대여학생들에게는 이러한 경험들이 더욱 치명적일 수 있는데 가벼운 성접촉으로부터 이어지는 성교경험은 임신, 낙태, 성병 감염의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미

혼모, 학업의 중단, 가족으로부터의 분리, 개인적인 자부심의 저하, 성 정체성의 혼돈, 이성애에 대한 불신, 사생아 출산, 동료 집단으로부터의 탈락 등의 심리 사회적 문제를 동반하게 되며, 불임, 자궁 외 임신, 전치 태반등의 전 생애적인 성 생식 건강 문제와 함께 양육의 문제, 결혼 부적응등의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발단이 된다(최연순 외, 1999).

따라서 이성교제 하는 청소년 그 중에서도 특히 십대 여학생을 중심으로 성건강 차원의 임신예방 및 원치 않는 성교 예방에 주력해야 하고 이를 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십대여학생 12,733명과 미혼모 146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보고서인 ‘십대 여성의 임신 실태 및 예방대책’(장순복 외, 2000)에서 청소년 자신들이 주장하는 원치 않는 성교 예방법과 원치 않는 임신 예방법으로는 자기주장 능력 향상을 가장 우선시 하였고, 그 다음으로 사실적이고 감성적 성교육과 남성을 위한 성교육을 강력하게 제안하였다. 청소년 자신들이 임신 예방과 원치 않는 성교예방 방법에 대해 자기주장을 언급한 것은 자기주장이 십대 여학생의 성교나 임신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방법이자,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기주장이란 Alberti와 Emmons(1982)에 의하면 자신의 이기대로 행동하면서도 불안을 느끼지 않으며 자신을 옹호하고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며,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동시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동이다. 이런 자기주장 행동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좀 더 빨리, 쉽게 성취할 수 있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행동에 대해 만족할 수 있으며 곤란한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피력함으로써 스스로 자존심을 지키게 되는 방법이기도 하다(Renni, Fritchie & Meggie, Melling, 1991). 즉 자기주장이란 자아존중감을 높히게 되는 하나의 방법적이고 표현적인 능력이자, 자신을 보호하는 행동을 통하여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지키게 되는 방어적 기술이기도 하다. 또한 성적인 의사소통의 통로가 막혀있는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자라난 여학생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접촉의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그 상황을 피해가는 능력인 자기주장은 우발적인 성 행동을 예방하는 중요한 개인적 능력이기도 하다(조정아, 1991).

Coopersmith(1976)는 자아존중감이 ‘개인이 그 자신을 유능하며 중요하고 성공적이고 가치 있다고 믿는 정도’라고 하며, 이는 주위와 타인의 영향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Rogers는 이상적인 자아와 실제적인 자아를 일치시키는 것이 상담의 목표라고 볼 수 있으며 자아개념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주장훈련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이장호, 1987). 그러므로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기 어려우나 자기주장과 자아존중감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념이다.

십대 성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로 기존에 밝혀진 요인으로는 청소년 범죄, 약물 남용, 흡연, 알코올 섭취(Huizinga, 1993), 결혼가정(박영신, 1988), 또래 집단의 압력(Carvajal 외, 1999), 대중매체의 역할(Kinsman, 1998), 호기심, 충동, 자아 정체감(Moore 외, 1997)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은 요인 외에 여학생이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 즉, 자아존중감과 이성교제 과정에서 자신의 느낌이나 의견을 얼마나 잘 표현하여 자기가 의도하고 기대되는 방향으로 이성교제를 하느냐 즉 자기주장과 성접촉과의 관계를 연구한 것은 없었다. 다만 청소년 비행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보는 선행연구는 몇 있었는데 청소년의 비행과 자아존중감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Papenfuss, 1983; Klos, 1986), 청소년의 비행과 성행동은 양적 상관관계(김태근, 1997)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십대 여성의 임신 실태 및 예방대책’(장순복 외, 2000)에서는 이성교제를 하고 있거나 이성교제를 한 경험이 있는 여학생이 이성교제를 하지 않은 여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이나 자기주장 능력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성교제를 선택하는 청소년기에서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이나 자기주장 능력이 오히려 떨어진 현상은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하겠다. 이는 우리나라 십대 여학생이 이성교제하는 과정을 통하여 성적인 자아를 발달시키고 폭넓은 인간관계 형성을 습득하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기보다는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으며 자기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청소년의 모든 이성교제를 하나의 현상으로 일반화하여 보기 어렵고, 이성교제를 보다 세분화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10대 여학생들이 이성교제 하는 과정에서

성접촉은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청소년들에게 성접촉과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 정도를 알아봄으로서 각각의 성접촉 단계에서 작용하는 십대여학생의 자기주장정도는 어느 정도이며 이들 자신의 평가적 요소인 자아존중감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봄으로서, 성접촉의 정도가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에 영향을 주는지 혹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의 정도가 성접촉 단계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가벼운 성접촉으로부터 발단이 되어 성교에 이르게 되는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신체적 성접촉에 뒤따르는 성교가능성과 후속적인 임신 가능성, 성병감염의 가능성 등을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의 성교육에 기본 지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계적 성접촉 중에서 성교에 이르는 과정에 적절한 중재 시점을 찾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2. 연구 문제

십대여학생의 이성교제시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과 성접촉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3. 연구 목적

- 1)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성접촉 실태를 조사한다.
- 2)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조사한다.
- 3)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자기주장을 조사한다.
- 4)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성접촉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조사한다.
- 5)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성접촉과 자기주장의 관계를 조사한다.
- 6)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과의 관계를 조사한다.

4. 용어 정의

1) 성접촉

이성간에 이루어지는 성적인 신체적 접촉의 정도를 의미하며(윤가현, 1998) 본 연구에서는 이성교제 과정에서 경험하는 손잡기, 어깨동무, 가벼운 뽀뽀, 키스, 가슴 만지기, 성기 만지기, 성교하기 등의 각각의 신체적 성접촉 경험 여부이다.

2) 자기주장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행동 또는 느낌과 생각을 말하는 행동으로 소극적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행동이며(Fensterheim, 1975), 본 연구에서는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촉을 남자가 시도할 때 여학생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장순복(2000)이 개발한 7문항을 3점 척도로 측정한 점수의 합을 의미한다.

3) 자아존중감

자아개념의 평가적 요소로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있는 인간으로 인지하는 것(Argyle, 1972)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자신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지각정도를 말하며 이는 Rogenberg(1971)에 의해 개발된 self-esteem scale의 10개 항목을 4점 척도로 측정한 점수의 합을 의미한다.

제 2 장 문헌 고찰

1. 이성교제와 성접촉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이성교제 과정을 거치면서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이성과의 지속적인 관계형성을 위한 능력을 터득하게 된다(윤가현, 1998). 청소년기의 이성교제는 여가를 즐기는 기능,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 기능, 시간이 흐를수록 상호 만족스런 친구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기능, 성장 후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되는 기능, 마지막으로 데이트를 통하여 상호 용납되는 범위 내에서 성 행동을 경험하게 되는 기능을 갖고 있다(Atwarter, 1992). 또한 이성교제는 이성의 타인과 친밀감을 키우는 수단이 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육체적 가까움을 가지게 되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에 성접촉과 친밀감의 정도가 불행하게도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러한 성접촉의 단계를 순서적으로 밟아 나가지 않는 경우도 많다(한옥자, 1999).

대략적으로 남자는 12세에서 14세 전후, 여자는 13.5세에서 16세 사이에 이성접근 욕구, 성적 관심, 키스 욕구 등의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 평균적으로 15세 이후인 청소년 중기부터 이성교제를 시작한다(강태순, 1993). 청소년의 이성교제 경험율은 김언희(1992)의 연구에서 68.9%, 김정옥(1993)의 연구에서 51.6%, 미태순(1994)의 연구에서 64.1%, 이양재 외(1997)에서 41.2%, 이찬(1996)의 연구에서 39.2%, 김태근(1997)의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59.8%(남학생 61.6%, 여학생 57.7%)가 이성교제를 해 본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이성교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미 청소년의 반 수 정도가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이성교제가 보편화된 현실에 있어서 이성교제 과정에서 쉽게 성적인 접촉의 기회가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청소년의 키스나 애무 경험은 고등학교 1학년이 30.9%, 2학년은 45.2%, 3학년이 56.3%가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여 이성교제율과 함께 올라가는 현상을 볼 수 있

다(김태근, 1997). 키스, 애무 경험이 있는 학생은 성교 경험율까지 함께 올라가는 것도 볼 수 있는데(인문계 87.3%, 실업계 90.7%) 그 중 인문계, 실업계 공히 성교 경험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키스 경험으로 나타났으며, 키스 경험은 키스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10배의 성교 경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양재 외, 1998). 청소년의 키스나 애무에 대한 태도를 보면 성 경험이 있는 학생 중에서 이성교제 시 신체 접촉의 허용정도가 키스나 애무 및 육체적인 성교까지 라고 대답한 학생이 인문계 69.1%, 실업계 68.0%였으나, 성 경험이 없는 학생군의 경우 불과 인문계 15.2%, 실업계 2.0%로 성경험 여부에 따라 키스나 애무에 대한 인식도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십대 청소년의 성교 경험률은 7.5%(이양재 외, 1997), 5.2%(박영주, 1998), 15.6%(김승목, 1996), 김상원의 1995년 연구에 의하면 남학생의 65.2%, 여학생의 28.2%로 나타났고, 이양재 외(1998)의 연구에서 성교 경험률은 13.7%(남학생 17%, 여학생 8.7%)였다. 그 비율은 고등학교 1학년은 9.9%, 2학년은 10.4%, 3학년인 경우 19.8%로 2, 3학년에 성 경험 비율이 2배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태근, 1997). 성교 경험을 역시 키스나 애무 경험율과 같은 현상으로 청소년의 이성교제율과 함께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성교제와 성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과거에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 중에서 성교 경험이 있는 학생은 인문계 8.7%, 실업계 15.7%로 나타나고, 이성교제 없는 학생 중에서 성교 경험이 있는 학생은 인문계 1.2%, 실업계 3.0%로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군이 성교 경험율이 8 배에서 5 배정도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성교제 중에 있는 청소년인 경우의 성교 경험율은 무려 인문계 16.3%, 실업계 25.0%로(이양재 외, 1998)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성교 경험률보다 5-24배 이상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이성교제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성접촉 및 성관계에 이르게 되는 위험이 그러한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최옥숙(1992)의 10대 여성의 성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10대 여성의 성교 경험 대상자는 주로 이성친구나 연인이 88.5%로 가장 많았고, 이양재 외(1997)의 연구에서는 여고생의 성 경험 대상으로 남자친구가 63.8%로 가장 많았다. 이는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상원, 1996)에서 성 경험 대상자의 74.7%가 여자 친구였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연구 결과를 보여 주었다. 심지어는 여고생 성추행 가해자의 99.3%, 성폭행 가해자의 89%가 남자친구였으며, 성병 경험 경로로 총 7명의 감염자 중 5명이 남자친구를 통하여 감염되었다는 연구(김영희, 1992 ; 홍원호, 1995)도 보고되고 있다.

위와 같은 문헌고찰을 통하여 보면 청소년들은 비슷한 또래와의 이성교제 과정에서 키스나 애무 등을 경험하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 성교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성폭력, 성희롱, 성병감염 등의 심각한 성 건강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십대의 조기성교는 신체적으로 임신 횟수의 증가, 더 많은 성 파트너, 성병의 증가 등의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Wyatt & Durvasula, 1999). 또한 조기성교는 여성이 불임이 되고 자궁암에 걸리는 몇 가지 원인들 중의 하나이다(성문화 연구소, 1996; Greenberg, 1992). 십대의 성교의 특징적 현상은 성교 시도 자체가 계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윤가현, 1998; Kinsman, 1998) 피임에 실패할 확률이 높으며, 이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될 확률도 높다. 십대 여성의 임신은 위협적인 사건으로서 자살이나 가출등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여 문제상황을 회피하여 악화시키기도 한다. 십대 임신여성은 심리적으로 부모라는 지위에 대한 중압감과 사회의 거부감에 당황해하고 결혼 외의 임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서둘러 결혼을 강행할 수 있으며 어린 나이의 결혼 생활은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회적으로 학교를 떠나게 되고 이런 교육적 성취의 방해는 취업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므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성문화 연구소, 1996). 이로 인해 십대 모성은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머무르게 되고, 십대 모성의 아이들은 그들 자신이 또 다른 십대 모성이 될 가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Seamark, 1997)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불건강의 악순환을 이루게 된다(Wyatt & Durvasula, 1999).

15세가 되기 전의 조기 임신을 하는 여성의 경우 임신성 고혈압으로 사망할 확률이 3.5배나 되는 등 일반적인 여성들보다 모성 사망률이 60% 이상 높게 나타난다. 15-19세 여성 인구의 주된 사망원인 역시 임신과 출산인데, 골반이 완전하

게 발달하여 충분한 크기로 자라기 전의 임신은 난산의 원인이 되며 신생아의 두개골 기형등의 원인이 되어 영아 사망률은 20대 초반 모성에서 태어난 아이들보다 15세 미만의 모성에서 태어난 경우에 2.4배나 더 높다(성문화 연구소, 1996; Marian,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대 임부는 자기 자신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무시함으로 적절한 간호를 받지 않아 자신뿐 아니라 태아에게도 위험을 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Nathaniel H, 1998) 연간 300만 건의 임신 중 1/3이 십대 임신, 그 중에서 70%는 빈혈, 임신성 고혈압, 조산의 위험, 태반조기박리, 자간증의 위험 속에서도 적절한 산전간호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충분한 영양, 음주, 흡연등의 건강위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Seamark, 1998).

더 나아가 십대 여성의 임신은 미혼모, 조기 결혼, 그 외에는 낙태로 종결되는데 인공유산은 합병증의 가능성이 높아 자궁천공, 골반염 및 불임을 유발하고 인공유산이 반복되면 자궁내막 유착증 및 자궁경관 무력증도 발생할 수 있어 향후 자연유산이 반복되는 ‘습관성 유산’으로 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인공 임신 종결자의 32.9%가 미혼여성이고(주기종, 1996), 이러한 미혼모인 경우는 의료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인공유산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박문일, 1998).

박영주(1998)의 논문에서 우리 나라 십대 여성의 임신율은 십대 미혼여성 1,000명중 7.2명, 인공 유산율은 4.3명, 출산율은 1.2명이었다. 주목할 점은 성 교 경험자 중 피임을 한 경우는 37.2%에 불과하고, 14.3%가 임신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구병삼 외, 1995). 최근 여중생들이 “낙태계”를 하여 친구가 임신을 하면 낙태비용을 부담해 주는 일까지 하고 있다(김상원, 1995). 이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검토한 결과 연령에 있어서는 13세, 14세의 중학생인 조기 십대에서 고등학생보다 높은 임신경향을 볼 수 있었으며, 인공유산 경험자의 인공유산 회수를 보면 53.9%가 2회 이상의 반복적인 인공유산을 하고 있었으며, 유산 시기 역시 38.1%가 중반기 유산이었다. 미혼모 발생현황 및 미혼모 복지의 방향(한인영, 1998)의 보고에서 보호시설에 수용된 미혼모 중 10대의 비율이 지난 91년 24.3%에서 93년에는 32.4%, 96년 42.5%, 97년 47.9%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80년대와는 다른 현

상인 미혼모의 저 연령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이 십대 여학생의 심각한 성행위의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십대 여성의 원치 않는 임신예방 및 원치 않는 성교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결과를 외국과 비교하면 미국의 경우 임신율은 십대 미혼 1,000명당 56.4-110.6명, 인공 유산율 5.9-59.5명, 출산율 33-81명이며(Spitz, 1993), 영국의 경우 십대 미혼여성 1,000명당 36.6-94.8명, 인공 유산율 22.7-49.3명, 출산율 12.6-63.6명(Garlick, Ineichen & Hudson, 1993)에 비하여 낮은 수치이지만 그 추세가 증가 일로에 있고 미혼모에 대한 복지 대책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함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십대 미혼모 발생은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헌고찰 과정을 통한 결과로 청소년은 과반수 정도가 이성교제를 하고 있으며 이중 30%에서 50%정도가 키스나 애무를 경험하고 있고, 이성교제하는 청소년의 경우 8%에서 25%정도가 성교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 성교 대상자는 여학생인 경우 88.5%가 상대 이성친구였다. 이러한 성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는 데이트 경험이, 성접촉 단계에서는 키스가 가장 강력히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고찰을 통한 결과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는 십대의 조기 성교, 임신, 낙태의 위험성에 대하여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으나 십대의 성접촉에 대한 사회 심리적 변인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성 생식의 문제를 임신과 성병과 같은 신체적이고 물리적이며, 드러나는 문제 중심적인 관점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여지며, 여성의 성 건강을 구성하는 다차원적인 요소를 간과한 결과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십대의 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성교제 과정 속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성접촉의 문제로부터의 시작되어야 하며, 이러한 성접촉 과정을 보다 자세히 연구하고 그 과정에서 작용하는 개인의 사회심리적 변인을 알아냄으로써 십대여학생을 위한 적절한 중재의 시점과 보다 현실적인 중재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십대여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

자아존중감(global self-esteem)이란 자신에 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자기 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Rosenberg, 1979). Maslow(1954)는 내적 자아존중감과 외적 자아존중감으로 나누어 외적 자아존중감은 타인이 자신을 소중하게 대해 주는 데서 형성되는 것이고 내적 자아존중감은 스스로가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이고 적절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Gordon(1969)은 ‘자신의 잠재적 행동과 중요한 타인의 평가를 반영하는 개개인의 평가지향’, Elkind와 Weiner(1978)는 개인이 스스로에 대해 인정하는 가치이며 자신이 하는 일에 성공을 기대하는 정도라고 하였다.

자아 개념과 자아존중감을 구별하여 본다면, 자아개념이 자기를 기술하는 행동 특성으로 정의할 때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에 속하지만 좀 더 자기 특성에 대한 가치(valuation)를 기술한다. 여기서 자신을 가치있게 평가하는 정도라는 것은 자기존경의 정도이지 오만함이나 자신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신종순, 1990). 즉, 자아존중감의 진정한 의미는 오히려 자기자신을 가치로운 인간으로 여기는 것이며, 비록 개인이 자기의 결점이라던가 더 잘 되어 지기를 기대하는 소망이 있다손 치더라도 자기의 보다 좋은 점 또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한 고마움을 느끼면서 근본적으로 자기에 대한 존중감을 갖는 것이다.

Rosenberg(1979)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은 다음 네 가지 원리에 의하여 형성된다고 한다. 첫째, 반영된 평가(reflected appraisals), 둘째, 사회적 비교(social comparison), 셋째, 자아귀인(self attribution), 넷째, 심리적 중요성(Psychological centrality)이다. 반영된 자아라는 것은 Mead의 이론에 기초하여 사람은 타인이 자신에 대해 갖는 태도에 영향을 받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타인이 보는 대로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비교는 인간은 또한 다른 사회 범수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한다. 또한 자아귀인은 Bem의 이론에 기초하여 인간이 자기의 태도, 감정 및 기타 심리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행위나 또는 그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환경을 관찰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심리적 중요성은 자아개념의 각 요소들(지능, 도덕심, 친절, 사회적 지위등)은 단순히 집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아개념에의 각 요소가 지니는 상대적 중요성이 자아존중감 형성에 고려되어야 한다(Rosenberg, 1979).

Reasoner(1994)는 폭력과 범죄에 대한 1,000여 개의 연구 논문과 기사를 개괄한 그의 연구에서 첫째, 낮은 자아존중감이 여러 종류의 범죄나 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둘째, 자아존중감을 표방한 많은 프로그램들은 폭력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셋째, 모든 범죄가 관련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하며,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습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신종순(1990)의 고등학생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의 구성요인인 자기 중심성, 반사회성, 허황성은 모두 총 자아존중감과 부적 관계를 보여 주고 있어 이들 문제 행동을 많이 할수록 총 자아존중감이 낮아짐을 보여 주고 있다.

자아존중감과 성접촉과의 관계는 이미 나와 있는 연구가 없지만 조기 성교와의 관계는 몇 연구가 있다. 십대 여성의 조기성교는 정서적으로 많은 문제를 낳는데 첫 성교를 한 여성의 경우 남자보다 기쁘고, 만족하고, 흥분된 경험을 하기보다는 슬프고 죄책감을 가지며 긴장, 불안, 당황, 공포를 느낀다고 하였다(Guggino, 1997). 청소년들은 성행위를 어른이 되는 관문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자아정체감을 확인하기보다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더 들고 첫 경험의 죄책감이 나이 들어서 현재의 성 만족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Moore, 1997). 이런 혼전 성교는 성병, 임신, 미혼모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갈등의 원천으로 남으며, 특히 여성에게는 성교로 인한 스트레스가 최근까지 심각한 정서 문제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최수일, 1996). 또한 성교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성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보다 더 심한 갈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성적 갈등을 볼 때 정서적으로 건강치 못한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청소년들 보다 더 심한 성적 갈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신체적인 면, 성 충동면, 성 가치면, 성 행동면등 각 요인에 있어서 모두 더 심한 갈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서적 정신건강과 성적 갈등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임용자, 1987).

십대 청소년의 비행행위와 성 경험률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비행 청소년이 이성교제율이 높고(함웅, 1985), 성 경험 및 임신과 음주, 흡연, 환각제, 가출등의 비행에 중복성을 보였다(이양재, 1998; Huizinga, 1993; Rosenthal, 1999; Miham, 1990). 성 의식과 태도 역시 비행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성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성 지식이 높을수록, 성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일수록 비행정도가 높았다(김태근, 1997). 따라서 십대 청소년들의 비행과 자아존중감과는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십대 비행의 성향이 높은 청소년이 성경험율이 높다고 밝혀졌으나 십대 청소년의 성접촉과 자아존중감과는 이미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십대 여성이 성교 후에 갈등과 죄책감이 있다고 밝힌 연구만 있을 뿐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이 조기 성교에 이르게 된다는 연구나 조기 성교에 의하여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는 연구는 아직 없는 상태이다. 또한 성교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성관계에서 성교의 연속선에 있는 성접촉이 진행됨에 따라서 여성이 자신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한 이성관계가 진행됨에 따라 어느 시점에서 성접촉이 이루어지는가에 따른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는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중재적 의미의 개념이 자기주장인데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자기주장(assert)이란 “긍정적으로 확실하고 솔직하게, 또는 강하게 말하거나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Fensterheim(1972)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행동 또는 느낌과 생각을 말하는 행동으로 소극적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행동이라고 하였으며, Hersen과 Bellack(1976)은 자기주장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는데 먼저, 부정적인 자기주장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비합리적인 요구는 거부하는 것이며, 긍정적인 자기주장(positive assertive)은 칭찬, 감동, 승인, 동의의 긍정적인 감정표현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임상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자신을 주저없이 드러낸다. 언어와 행동으로써 ‘이것이 바로 나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원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대상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처음 본 사람이나 친한 친구, 또는 가족 모두와)과 대화할 수 있다. 이때 대화는

항상 개방적이고 직접적이며 솔직해야 하지만 정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셋째, 인생을 적극적으로 산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추구하며,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사람과는 달리 일을 만들어 나간다. 넷째 자신을 존경할 수 있는 행동을 한다. 하지만 자신이 언제나 옳을 수는 없고 스스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수용해야 한다. 비록 목표를 이루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함으로써 승패와 관계 없이 자긍심을 지녀야 한다(Fensterheim & Baer, 1997).

종합하면 자기주장이란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쾌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 느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나타내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기주장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모습을 가식 없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나 자신에 관해 이해를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자기주장은 단순히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인다는 의미 이상으로서 원만한 인간관계의 형성과 정신 건강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장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임승규, 1999).

자기주장적 행동과 반대되는 개념은 비 주장행동인데 , 여기에는 소극적 행동과 공격적 행동이 해당된다. 먼저 소극적 행동이란 자기주장행동을 하고 싶으면서도 위축되었거나 눈치나 체면 때문에, 혹은 용기가 없어 자신의 의사를 솔직하게 나타내지 못함으로써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즉 자기자신을 속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전혀 마음에도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다음으로 공격적 행동이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여 불쾌하게 하면서까지 자기의 권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행동을 말한다. 이러한 공격적 행동을 하는 사람은 타인의 행동보다 그 사람 전체를 공격하곤 하는데 이는 억눌린 분노로부터 야기되는 적의적 과잉반응으로 볼 수 있다(김성희, 1984; 이인순, 1990).

Galassi 와 Delo(1974)는 낮은 주장 정도를 보인 청소년들이 열등감, 대인관계에서의 불안등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고 있는 반면, 높은 주장정도를 보인 청소년들은 자기 주장적이고 성취 지향적이며,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임승규, 1999). 따라서 자기 주장 훈련은 부적절한 사고 형태인 낮은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주는 인지적 측면에서의 도움을 제공하고, 부적절

한 정서적 불안이나 분노를 변화시켜 대인관계에서의 개인의 행동적 측면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체계나 맥락을 바꿈으로서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상승시킬 수 있고 한편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끊임없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한 유형인 자기주장 능력과 자아존중감은 십대 여성의 이성교제 관계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장순복 외, 2000).

여성은 남성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생물학적으로 성세포의 염색체에 의해서 결정된 후에도 사회 문화적 맥락 내에서 성에 따른 상이한 경험세계, 즉 특정한 사회구조 내에서 학습되고 내재화한 가치에 따른 것으로 생물학적인 성(sex)과 문화적인 성(gender)이 상호 작용하여 성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전통적으로 남성은 공격성, 능동성, 지배성이 있고, 여성은 수동성, 피지배성, 유양성, 덕성의 기질이 강하므로 여성은 애정, 가사, 육아의 역할을, 남성은 정치, 경제, 산업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러한 성 역할 고정관념은 여성을 예측된 존재로서 왜곡, 비인간화된 모습으로 변질시키고 대신 ‘여성다움’이란 현상을 부여함으로써 창조적이고 주체적인 삶으로부터 분리된 이등급(second people) 혹은 비생산적인 사람(disadvantage people)으로 취급하고 여성억압을 정당화하게 되었다(이경혜, 1995). 이로 인해 여성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차단당하고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것이 여성다운 것이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학습하게 된다.

이와 같은 억압은 여성이 이성교제하는 과정에서도 표출되는데 이숙경(1993)은 보통 성관계의 과정을 보면 우발적이면서도 갑작스러운 경험이라고 표현하는데 여성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지만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남성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며 여성에게 동의를 확인하는 과정이 없고 설사 확인하더라도 여성의 거절이 완곡한 승낙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남성은 여성의 동의가 성관계하는 기준이 아니라 여성의 거절을 불사한 남성의 적극적인 요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성문화 연구소(1998년)의 대학생 성 행태 조사에 의하면 성 관계를 갖게 되는 이유가 남학생은 충동과 사랑, 쾌락이 주요 이유이지만 여학생은 사랑(74.6%)과 거절을 못해서(39.8%),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30.4%)로 정서적인 문제, 관계유지, 거절의 기술 부족이 주요 이유로 나타났다.

비슷한 연구로 성문화 연구소(1998)의 미혼 성인의 성의식 및 성행태 조사연구에서는 남자가 성관계를 가지게 되는 이유는 성적 충동 때문에(75.7%)로 가장 많았으나, 미혼여성이 경우에는 성관계하는 이유로는 사랑하기 때문에(84.3%), 사랑을 확인하려고(62.7%), 거절하지 못하여(58.5%), 좋아하므로(42.2%)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십대 미혼모의 임신한 한 대부분의 이유를 사랑, 결혼 약속(62%)라고 하였다(박영주, 1998).

Paplau(1977)가 미국의 보스턴에 거주하는 231쌍의 대학생들의 상대로 데이트와 혼전성교를 관계로 연구한 결과 연구 대상자들 가운데 거의 41%가 데이트가 시작된 지 1개월 이내에 성교를 했다고 하고 일부는 사랑이 없이도 성교가 가능하고 성교가 정서적인 친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특히 남자인 경우 성관계를 위하여 24%-48%가 여성을 협박하고, 25%가 사랑하거나 장래 약속을 하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특히 이중 70%가 술 마신 상태에서 거짓말을 하며 0.2%는 물리적 폭력으로 성폭력을 하였다고 한다(Fischer, 1996). 여성인 경우는 지속적인 데이트와 장래 약속등의 정서적 요인이 성교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지만 남성의 성교동기는 쾌락과 재미가 중요한 동기로 나타났고 정서적 요인이 필수는 아니다. 사랑은 남성들에게는 구애전략인 반면 여성에게는 직접적인 성교 동기가 된다(윤가현, 1998).

Wood(1998)는 성병과 임신, 원치 않는 성적 관계에 대항하여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여성의 능력을 부분적으로 간과하는 점에서 이 점이 여성생식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남아프리카에서 남성들이 그들의 성적 관계에서 우세해지기 위해서 강제적인 행위와 폭력을 드러내고 십대 소녀들에게 사랑, 성 관계 권위의 구조를 통하여 강요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성적 경험들의 정당성은 침묵과 복종으로 교육되고 이것이 사랑의 표현으로 인지하도록 강요되었다고 하였다. Abma(1998)는 13세 이하의 여성 중 2%, 19-25세 이상의 여성의 10%가 자신의 첫 성교가 자발적이 아니라고 보고하였고, 자신의 첫 성교가 자발적이었다고 응답한 이들 역시 이들 중의 1/4이 자발행동의 척도에서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자신보다 7세 이상 나이가 많은 성 파트너와의 첫 성교를 한 여성들은 자신의 나이와 비슷한 나이 혹은 더 어린 나이의 파트너와 성교한 여성보다

자발 척도의 점수가 두 배정도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피임 방법을 사용한 정도도 낮았다고 하였다. 이들은 첫 성 경험에서 부정적인 감정이나 양가감정을 느끼면서도 자발적으로 성교에 참여하였다고 대답하였다. Nancy 외(1999)는 원치 않는 첫 성경험을 한 청소년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신체적인 폭력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가출, 물질 남용을 더 많이 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Brindis(1999)는 비보호된 성행위의 위협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의도되지 않는 임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나이, 문화, 성, 성 경험 횟수에 따라 적합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어야 하며, 특히 여성에게는 의사소통의 기술과 거절의 기술을 모델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여성이 개방적인 태도로 자신의 성 문제에 대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싫은 느낌은 싫은 느낌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훈련이 어려서부터 필요하겠다. 또한 여성들은 자라나면서 내면화하게 되는 권위에 대해 무조건 순종하는 태도를 탈피하여 스스로 무엇이 정당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질을 키워야 하며, 성과 연애 및 결혼에 대한 막연한 환상보다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습득해야 할 것이다(조정아와 조혜순, 1991). 그러므로써 자기 의견을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당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능력은 복종, 자제, 양보를 미덕으로 하는 유교 문화권의 여성에게 특히 그 중에서도 인격이 채 완성되기 전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매우 필요한 능력이라고 보여진다(홍경자, 1996).

심리학자인 헝거포드 박사는 성의 사다리를 소개함으로써 이성교제 과정에서 성관계까지 이르게 되는 단계를 제시하였는데 첫 단계가 ‘상호주시’로부터, ‘간단한 대화’, ‘계획을 짜기’, ‘산책’, ‘계획의 공유’, ‘말하면서 접촉하기’, ‘함께 웃기’, ‘소망의 공유’, ‘팔짱을 낀 산책’, ‘형식적 포옹’, ‘사랑해’, ‘애매한 키스’, ‘완전한 포옹’, ‘간단한 신체적 접촉’, ‘프랜치 키스’, ‘가슴 만지기’, ‘애무’, ‘성관계’ 단계가 있다 하였다. 이때 ‘상호 주시 단계’로부터 ‘팔짱을 낀 산책’까지의 단계는 우정의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접촉이며, ‘말하면서 접촉하기’ 단계로부터 ‘프랜치 키스’의 단계까지는 상호 애정을 느끼는 단계이며, ‘말하면서 접촉하기’ 단계에서 ‘성관계’까지는 직접적인 성교단계라고 하였다. 의미있게 살필 것은 상호 겹치는 부분인데 ‘말하면서 접촉하기’, ‘함께 웃기’, ‘소망의 공유’, ‘팔짱을 낀 산책’은 우정의 단계이기도 하

지만 애정의 초기단계이기도 하고, ‘사랑해’하고 말하는 단계, ‘애매한 키스’, ‘완전한 포옹’, ‘간단한 신체적 접촉’, ‘프렌치 키스’의 단계인 경우에는 애정의 단계이기도 하지만 성교의 전 단계이기도 하다. 친밀감을 발단으로 하는 신체적 접촉의 과정에서 남녀가 인지하는 친밀감의 단계와 그 친밀감에 해당하는 상호 용납되는 접촉의 범위가 일치하는 것은 이성교제는 과정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접촉의 과정에서 서로가 느끼는 친밀감의 단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촉이 이루어 진다면 서로가 접촉을 통하여 기대하는 마지막 성접촉의 단계도 서로 다를 것이고 같은 성접촉이라도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를 것이다. 따라서 그러므로 이성교제하는 여학생들은 신체적 접촉의 오해가 없도록 자기의 느낌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고, 자신의 느낌을 데이트 상대에게 표현하고 자신이 수용하고 용납될 수 있을 만큼의 성접촉을 경험할 수 있는 자기주장 능력과 더불어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자아존중감 정도가 이성관계의 건강한 성접촉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가협 청소년 상담실의 상담내용별 분석결과 청소년의 가장 큰 관심사는 성문제이며 청소년 범죄 중 가장 많은 것이 성범죄였으며, 청소년의 가장 큰 고민은 성에 대한 고민이었다(주기종, 1996). 청소년의 성 문제는 청소년 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성 충동, 자위행위, 임신, 이성 문제등의 순으로 성에 관한 상담이 상위 순으로 계속 대두되고 있다(이유정, 1995). 또한 성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성에 대한 가장 큰 고민은 이성교제에 관한 것(31.6%)이었다(이양재, 1998; 김영희, 1993; 홍원호, 1995). 따라서 이성교제에 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요구되어지며 특히 이성교제 과정에서 일어나는 가벼운 성접촉으로부터 성교에 이르는 과정과 더불어 성접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십대여학생이 원치 않는 성접촉 상황에서 얼마나 적절히 자기주장 하는가, 이때의 자아존중감은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이 십대의 성접촉에 영향을 주는지 혹은 성접촉 정도 자기주장이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게 되는가의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제 3 장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주장능력, 성접촉 경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간에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서 우편 설문지를 이용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표적 모집단은 전국에 소재한 총 4,684개교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13- 19세의 십대여학생 1,988,902명이며, 근접 모집단은 전국에서 여학생을 포함하고 있는 중학교 2,741개교(남녀공학, 여학교)와 고등학교 1,943학교(남녀공학, 여학교) 중 다단계 집락 표출법으로 표출된 중학교 63개 학교와 191개 고등학교로 한다.

본 연구의 표본으로는 전국의 2,741개교의 중학교에서 다단계 집락 표출법으로 표출된 63개 학교에 다니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 6,300명과 1,943개 고등학교에서 다단계 집락 표출법으로 표출된 191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1,2학년 여학생 12,7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이 중 이성교제를 경험하고 있거나 이성교제 경험이 있었던 여학생 6,130명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 대상자 선정 방법은 십대여학생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같은 비율로 나누고, 도시(서울, 대전, 인천, 대구, 부산, 광주, 울산)와 전국의 9개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를 같은 비율로 나누어 인문계와 실업계, 학년별, 각 도별로 같은 비율을 적용하였다. 중학생인 경우 여학생이 한 학년 당 100명이 확보가능하고, 고등학교인 경우 한 학년 당 여학생의 수가 50명이 확보되는 학교를 선정하였다. 특히 지방의 학교인 경우

는 주소지가 읍, 면 단위에 소재한 학교로 선정하였으며, 7대 도시를 제외한 중, 소도시 단위에 소재한 학교는 배제하였다.

중학교 여학생은 총 63개 학교(지방 31개 학교, 도시 32개 학교)로 한 학교 당 100명의 중학교 3학년의 여학생 총 6,300명 선정 되었고, 고등학교 십대여학생은 총 191개 학교가 선정되었으며 이중 인문 95개 학교, 실업 96개 학교가, 도시 63개 학교, 지방 128개가 선정되었다. 또한 지방에 소재한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인문, 실업계별 여학생 100명을 확보하기 어려운 관계로 50명만 확보되는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 수를 2배 더 선정을 하였다. .

위와 같은 과정으로부터 도출된 전국의 254개 학교에 다니는 해당 학년의 여학생 중 중학생 6,300명, 고 1 여학생 6,400명, 고 2 여학생 6,300명이 선정되어 총 19,000명의 십대 여학생이 선정되었고 이들 중 이성교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이성교제 중에 있는 십대 여학생 6,130명을 선별하여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 표 1 > 각 지역별 선정한 학교 수

(단위: 개교)								
		중학교	고등학생				전체	
		중3	인문(고1,고2)		실업(고1,고2)		고교계	
도시 1개 학교 x 100명	서울	5	1개교 x 100명	5	4	9	14	
	대전	4		4	5	9	13	
	대구	4		5	4	9	13	
	인천	5		4	5	9	14	
	부산	5		5	4	9	14	
	광주	5		4	5	9	14	
	울산	4		5	4	9	13	
도시 합계		32		32	31	63	95	
		중학교	고1				고교	전체
		중3	인문		실업		합계	
농촌 1개 학교 x 100명	경기	3	3	4	3	4	14	17
	강원	4	4	3	4	3	14	18
	충북	3	3	4	3	4	14	17
	충남	4	4	3	4	3	14	18
	전북	3	3	4	3	4	14	17
	전남	4	4	4	4	4	16	20
	경북	4	4	3	4	3	14	18
	경남	3	3	4	3	4	14	17
	제주	3	4	3	3	4	14	17
농촌 합계		31	32	32	31	33	128	159
전체		63	96		95		254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연구 도구는 일반적 사항 8 문항, 자아존중감에 대한 10문항, 신체적 성접촉에 관한 7문항, 자기주장에 관한 문항 7총 32 문항이었다. 본 도구는 자료수집에 앞서 2000년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여고생 50명을 대상으로 하여 이해가 어렵게 표현된 내용이나 혼돈을 가져오는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안면 타당도와 내용 타당도를 보완한 뒤 연구도구로 사용하였다.

1) 자아존중감

청소년이 자신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지각정도를 말하며 Rogenberg(1965)에 의해 개발된 self-esteem scale을 전병재(1972)가 번안한 측정도구를 수정 보완한 10개 항목을 4점 척도로 측정된 것으로 3, 5, 8, 9, 10문항은 역 환산하여, 최저 10점에서 40점까지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검사 신뢰도 측정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 0.78$ 였고, 본 연구에서는 .8081이었다.

2) 자기주장

여학생이 이성교제시 원치 않는 접촉을 하려할 때 여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능력을 장순복 외(2000)가 개발한 7개 문항을 3점 척도로 측정된 도구로서, 1,2,3번의 문항은 역 환산하여, 최저 7점에서 최고 21점까지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장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사전조사 결과 신뢰도는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 0.524$ 였고, 본 연구에서는 .6062이었다.

3) 성접촉

십대여학생의 이성교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체적 성접촉의 정도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손잡기, 어깨동무, 가벼운 뽀뽀, 키스, 가슴 만지기, 성기 만지기, 성교하기 등의 7단계의 신체적 성적 접촉을 만남의 경과 횟수에 따라 표기하도록 7개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로써, 각각의 신체적 접촉 경험이 몇 회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2000년 10월 2일부터 10월 28일까지로 우편을 이용한 질문지자가 보고법으로 자료수집 되었다. 자료수집 과정으로는 선정된 각 학교의 학교장에게 자료수집을 위한 공문을 함께 발송하였고, 각 학교 양호교사에게 서면을 통하여 연구의 취지와 질문지 회수방법, 비밀유지나 자료수집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을 알리고 해당 학급에 자료수집을 하였다. 이 때에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상소요 시간을 알려주고 무기명으로 하여 비밀보장을 할 것을 약속한 후 참여 희망자에게만 할 것을 강조하고, 자료수집을 주관하는 담당교사가 절대로 답변한 설문내용에 대하여 보지 않도록 부탁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볼펜을 선물하였다. 질문지 완성 소요 예상 시간은 평균 10-15분 정도였고, 총 19,000부 중 회수된 설문지는 12,733부로서 회수율 67.0%였다. 이중 불완전한 설문지 84부를 제외한 후, 이중 이성교제 경험 중에 있거나 이성교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총 6,130부의 설문지가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5. 자료분석

본 연구는 PC용 Window SPSS program (v.10.0)을 이용하여 분석되었으며 구체적인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이성교제시 신체적 성접촉 경험 정도, 자아존중감, 자기주장능력 정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범위등의 서술 통계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성접촉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주장의 차이 검정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추후 검사로 Duncan method의 결과인 그룹간의 차이를 Scheffe method를 통하여 그룹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3.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 능력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 값을 구하였다.
4.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제 4 장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 6,130은 중학교 3학년 1,579명(25.8%), 고등학교 1학년 1,782명(29.1%), 고등학교 2학년 2,706명(44.1%)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여학생 대상자 중에 현재 이성교제 과정에 있는 여학생이 2826명(46.1%)이고, 과거에 이성교제 경험이 있었던 여학생은 3,304명(53.9%)였다. 학교형태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주, 야간을 합해 2,437명(39.8%), 실업계 고등학교가 주, 야간을 합하여 2,014명(32.8%)이었다. 이 중 주간 고등학교가 4,375명(71.4%)로 야간 고등학교의 76명(1.2%)에 비해 많은 비율을 나타냈다. 학교별로는 남녀공학이 2,915명(47.6%), 여학교 3,165명(51.6%)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동거인은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가 5,704명(93.1%)로 가장 많았고, 거주지는 전국 7대 도시, 도별 지역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나 도시 지역에서는 대구가 490명(8%), 지방에서는 전북 지역이 412명(6.7%)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여 주었다.

< 표 2 >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130
구 분		인 수 (명)	백 분 율 (%)
학 교 형 태 (1)	남녀공학	2915	47.6
	여학교	3165	51.6
	무응답	50	0.8
학 교 형 태 (2)	인문계고 주간	2382	38.9
	인문계고 야간	55	0.9
	실업계고 주간	1993	32.5
	실업계고 야간	21	0.3
	중학교	1579	25.8
	무응답	100	1.6
학 년	중학교 3학년	1579	25.8
	고등학교 1학년	1782	29.1
	고등학교 2학년	2706	44.1
	무응답	63	1.0
동 거 인	가족	5704	93.1
	하숙/자취	115	1.9
	기숙사	166	2.7
	보호시설	25	0.4
	친척집	66	1.1
	기타	54	0.8
거 주 지	서울	344	5.6
	대전	640	5.5
	대구	490	8.0
	인천	465	7.6
	부산	377	6.2
	광주	358	5.8
	울산	348	5.7
	경기	317	5.2
	강원	403	6.6
	충북	321	5.2
지 방 (44.3%)	충남	237	3.9
	전북	412	6.7
	전남	323	5.3
	경북	269	4.4
	경남	369	6.0
	제주	290	4.7
	무응답	467	7.6

2.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성접촉 실태

1)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최종 성접촉 분포

이성교제 과정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최종적인 성접촉의 단계로는 키스로 1634명(26.7%)였다. 이는 성접촉을 하지 않는 군의 분포인 842명(13.7%)보다 더 많은 비율로 이성교제 과정에서 키스를 흔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손잡기까지는 625명(10.2%), 어깨동무까지는 1269명(20.7%), 가벼운 뽀뽀까지는 691명(11.3%), 가슴 만지기까지는 359명(5.9%) 성관계까지는 458명(7.5%)로 나타났다. 성기 만지기만 접촉한 대상자는 없었는데 이로부터 성기 만지기 단계에 이르러서는 성 관계 단계로 곧 이어지거나 가슴 만지기 단계에서 더 이상 접촉이 진행이 되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3>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최종 성접촉 분포

n=6130		
구 분	인 수 (명)	백분율 (%)
안 했다	842	13.7
손잡기까지	625	10.2
어깨동무까지	1269	20.7
가벼운 뽀뽀까지	691	11.3
키스까지	1634	26.7
가슴 만지기까지	359	5.9
성기 만지기까지	0	0
성관계까지	458	7.5
무응답	252	4.1
Total	6130	100.0

2)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만남의 횟수에 따른 성접촉 분포

각각의 성접촉이 만남의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면 손잡기는 만남 첫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많은 빈도로 1,950명(31.8%)이 나왔고, 어깨동무는 2-3회에 이루어지는 것이 1,367명(22.3%)로 가장 많았으며 가벼운 뽀뽀, 가슴 만지기, 성기 만지기, 성관계인 경우에는 10회 이상 만났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 788명(12.9%), 256명(4.2%), 117명(1.9%), 139명(2.3%)로 가장 많았다. 반면에 성기 만지고와 성관계의 성접촉은 첫 번 만남부터 이루어지는 비율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기 만지기나 성관계의 성접촉 시점으로 각각 104명(1.7%)과 102명(1.7%)이 첫 번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성기 만지고와 성관계 경험의 시기가 만남의 횟수에 따른 시기와 거의 일치하는 빈도를 보여 성기 만지고와 성관계는 거의 동시에 일어남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들은 대부분 만남 첫날부터 손을 잡고 2-3회부터 어깨동무를 하며, 10회 만남의 이상에서 가벼운 뽀뽀, 키스, 가슴 만지기, 성기 만지기, 성관계에 이르게 되지만, 대부분의 여학생의 경우 키스(26.7%)까지의 성접촉을 이성교제 가운데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교와 성기 만지기는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성접촉임을 알 수 있다.

<표4>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만남의 횟수에 따른 성접촉 분포

n=6130, 단위 :명 (%)								
	만난첫날	2-3회	4-5회	6-7회	8-9회	10회 이상	안했다.	무응답
손잡기	1950 (31.8%)	1640 (26.8%)	508 (8.3%)	217 (3.5%)	65 (1.1%)	549 (9.0%)	904 (14.7%)	297 (4.8%)
어깨 동무	1101 (18.0%)	1367 (22.3%)	707 (11.5%)	323 (5.3%)	142 (2.3%)	548 (8.9%)	1578 (27.4%)	364 (5.9%)
가벼운 뽀뽀	456 (7.4%)	688 (11.2%)	470 (7.7%)	340 (5.5%)	184 (3.0%)	783 (12.8%)	2689 (47.9%)	522 (8.5%)
키스	327 (5.3%)	435 (7.1%)	335 (5.5%)	269 (4.4%)	153 (2.5%)	788 (12.9%)	3212 (52.4%)	611 (10.0%)
가슴 만지기	125 (2.0%)	119 (1.9%)	105 (1.7%)	77 (1.3%)	47 (0.8%)	256 (4.2%)	4758 (77.6%)	643 (10.5%)
성기 만지기	104 (1.7%)	43 (0.7%)	22 (0.4%)	33 (0.5%)	14 (0.2%)	117 (1.9%)	5134 (83.8%)	663 (10.8%)
성관계	102 (1.7%)	42 (0.7%)	26 (0.4%)	22 (0.4%)	12 (0.2%)	139 (2.3%)	5117 (83.5%)	670 (10.9%)

3.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자아존중감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을 나타내었는데 가장 많은 분포를 이룬 군은 자아존중의 합이 28점인 군으로 653명(11.1%)으로 나타났다. 최고 점수인 40점도 5명(0.1%)있었으며, 최저 점수의 10점도 1명 있었다.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자아존중감 평균값은 27.43 ± 4.03 점으로 나타났다.

<표5>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자아존중감

n=6130, 단위:명 (%)					
구분	점수	인수	백분율	누적 백분율	평균($\pm$ 표준편차)
자아존중감	10.00- 13.00	6	.0	.1	27.43($\pm$ 4.03)
	14.00	4	.1	.2	
	15.00	5	.1	.3	
	16.00	12	.2	.5	
	17.00	23	.4	.9	
	18.00	33	.6	1.4	
	19.00	46	.8	2.2	
	20.00	104	1.8	4.0	
	21.00	165	2.8	6.8	
	22.00	228	3.9	10.7	
	23.00	305	5.2	15.9	
	24.00	381	6.5	22.3	
	25.00	518	8.8	31.2	
	26.00	534	9.1	40.3	
	27.00	606	10.3	50.6	
	28.00	653	11.1	61.7	
	29.00	588	10.0	71.7	
	30.00	421	7.2	78.9	
	31.00	337	5.7	84.6	
	32.00	266	4.5	89.2	
	33.00	220	3.7	92.9	
	34.00	135	2.3	95.2	
	35.00	114	1.9	97.2	
	36.00	77	1.3	98.5	
	37.00	58	1.0	99.5	
	38.00	22	.4	99.8	
	39.00	5	.1	99.9	
	40.00	5	.1	100.0	
	Total	5871	100.0		
	missing	259			
Total		6130			

4.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자기주장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자기주장은 최저 7점에서 최고 21점을 나타내었는데 가장 많은 분포를 이룬 군은 자기주장의 합이 19점인 군으로 799명(17.5%)이었다. 최고 점수인 21점이 773명(17.0%)이었고, 최저 점수의 7점도 1명 있었다.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자기주장 평균값은 17.96(±2.55)점으로 나타났다.

<표6>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자기주장

n=6130, 단위:명 (%)					
구 분	점 수	인 수	백분율	누적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자기주장	7.00	1	.0	.0	17.96(±2.55)
	8.00	1	.0	.0	
	9.00	11	.2	.3	
	10.00	21	.5	.7	
	11.00	51	1.1	1.9	
	12.00	77	1.7	3.6	
	13.00	140	3.1	6.6	
	14.00	182	4.0	10.6	
	15.00	329	7.2	17.8	
	16.00	347	7.6	25.5	
	17.00	512	11.2	36.7	
	18.00	597	13.1	49.8	
	19.00	799	17.5	67.3	
	20.00	716	15.7	83.0	
	21.00	773	17.0	100.0	
	Total	4557	100.0		
	missing	1573			
Total		6130			

5.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성접촉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주장

1)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최종 성접촉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성접촉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어떤 성접촉도 하지 않은 군이 자아존중감의 점수가 제일 높았고, 성접촉이 진행됨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평균이 떨어짐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성관계 단계에서 자아존중감 평균값이 현저하게 떨어져 26.56점을 나타내었다. 자기주장 점수는 손잡기를 한 군이 18.51로 가장 높았다. 그 외의 성접촉인 가벼운 뽀뽀, 키스, 가슴 만지기, 성교의 경우에는 성접촉이 진행됨에 따라 자기주장 점수가 점점 낮아져 성관계를 경험한 군의 경우에는 16.67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최종 성접촉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 평균값의 차이의 유의성을 ANOVA로 검증해 보면 최종 성접촉 단계로 구별되는 그룹 따른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 정도는 각각 유의도 .000로서 평균값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7>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최종 성접촉에 따른 자아존중감

n=6130,단위:명			
구분	자아존중감 (mean±SD)	F	sig.
안했다 (n=802)	27.83±4.05	9.351	.000*
손잡기 (n=598)	27.80±3.99		
어깨동무 (n=1221)	27.77±4.02		
가벼운 뽀뽀 (n=659)	27.57±4.05		
키스 (n=1574)	27.09±3.96		
가슴만지기 (n=350)	27.12±4.12		
성기 만지기 (n=0)	-		
성관계하기 (n=433)	26.56±4.10		

< 표 8 >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최종 성접촉에 따른 자기주장

n=6130, 단 위 :명			
구분	자기주장 (mean±SD)	F	sig.
안했다 (n=802)	18.32±2.53	39.280	.000*
손잡기 (n=598)	18.51±2.52		
어깨동무 (n=1221)	18.45±2.32		
가벼운 뽀뽀 (n=659)	18.28±2.33		
키스 (n=1574)	17.98±2.41		
가슴만지기 (n=350)	17.02±2.64		
성기 만지기 (n=0)	-		
성관계하기 (n=433)	16.67±2.90		

2)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최종 성접촉에 따른 자아존중감 추후검증

자아존중감 점수를 Duncan test로 추후 검증했을 때 유의 수준 0.05의 검증으로 세 그룹으로 나뉘었는데 첫 번째 그룹은 성접촉 안한 군, 손잡기, 어깨동무, 가벼운 뽀뽀가 한 군으로, 두 번째 그룹은 키스, 가슴 만지기 그룹이 다른 한 군으로, 세 번째 그룹은 성관계한 군으로 나뉘어 졌다. 이하의 설명은 그룹 1, 2, 3로 칭한다. 이를 다시 Scheffe method로 각 그룹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그룹 1과 그룹 2는 평균차이 .6534로 그룹 1이 높은 평균값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 그룹 1과 그룹 3은 평균차이 1.1956로 그룹 1이 높은 평균값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 그룹 2과 그룹 3는 평균차이 .5422로 그룹 2가 그룹 3보다 높은 평균값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40$).

< 표 9 >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최종 성접촉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그룹간 차이 검증

기준그룹	비교그룹	평균 차이	표준오차	Sig.
Group 1 뽀뽀, 어깨동무, 손잡기 안한군	Group 3 성관계	1.1956(*)	.2057	.000
	Group 2 키스, 가슴만지기	.6534(*)	.1155	.000
Group 2 키스, 가슴만지기	Group 1 뽀뽀, 어깨동무, 손잡기, 안한 군	-.6534(*)	.1155	.000
	Group 3 성관계	.5422(*)	.2140	.040
Group 3 성관계	Group 2 키스, 가슴만지기	-.5422(*)	.2140	.040
	Group 1 뽀뽀, 어깨동무, 손잡기 안한군	- 1.1956(*)	.2057	.000

3)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최종 성접촉에 따른 자기주장 추후검증

자기주장 점수를 Duncan test로 추후 검증했을 때 유의 수준 0.05의 검증으로 네 그룹으로 나뉘었는데 첫 번째 그룹은 성접촉 안한 군, 손잡기, 어깨동무, 가벼운 뽀뽀를 한 군으로, 두 번째 그룹은 키스와 가벼운 뽀뽀한 군으로, 세 번째 그룹은 가슴 만지기한 군, 네 번째 그룹은 성관계한 군으로 나뉘어 졌다. 이하의 설명은 그룹 1, 2, 3, 4로 칭한다.

이를 다시 Scheffe method로 각 그룹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그룹 1과 그룹 2는 평균차이 .3784로 그룹 1이 높은 평균값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 그룹 1과 그룹 3은 평균차이 0.5422로 그룹 1이 높은 평균값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 그룹 1과 그룹 4는 평균차이 1.7692로 그룹 1이 그룹 4보다 높은 평균값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 그룹 2는 그룹 3과 평균차이 1.0449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 그룹 2는 그룹 4와 평균차이 1.3908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 그룹 3은 그룹 4와 평균차이 .3459로 검증력 0.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p=.301$).

< 표10>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최종 성접촉에 따른 자기주장의 그룹간 차이검증

기준그룹	비교그룹	평균차이	표준오차	Sig.
Group1 안한 군, 어깨동무, 손잡기	Group4 성관계하기	1.7692(*)	.1345	.000
	Group3 가슴 만지기	1.4232(*)	.1491	.000
	Group2 키스, 가벼운 뽀뽀	.3784(*)	8.278E - 02	.000
Group2 키스, 가벼운 뽀뽀	Group4 성관계하기	1.3908(*)	.1316	.000
	Group3 가슴 만지기	1.0449(*)	.1465	.000
	Group1 안한 군, 어깨동무, 손잡기	- .3784(*)	8.278E - 02	.000
Group3 가슴 만지기	Group4 성관계하기	.3459	.1808	.301
	Group2 키스, 가벼운 뽀뽀	- 1.0449(*)	.1465	.000
	Group1 안한 군, 어깨동무, 손잡기	- 1.4232(*)	.1491	.000
Group4 성관계하기	Group3 가슴 만지기	- .3459	.1808	.301
	Group2 키스, 가벼운 뽀뽀	- 1.3908(*)	.1316	.000
	Group1 안한 군, 어깨동무, 손잡기	- 1.7692(*)	.1345	.000

6.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만남의 횟수와 성접촉의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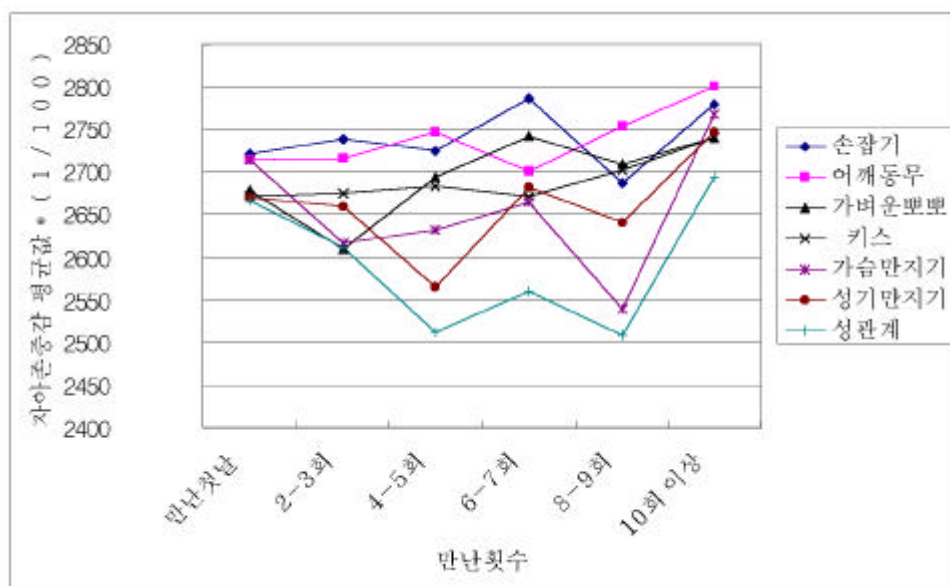
1)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만남의 횟수와 성접촉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평균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만남의 횟수와 성접촉에 따른 자아존중감을 평균값으로 살펴보면 손잡기, 어깨동무, 가벼운 뽀뽀와 같이 비교적 가벼운 성접촉일 경우에는 시기와 관계없이 자아존중감의 평균값이 별 차이가 없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키스를 경험한 군인 경우에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만남의 횟수가 반복되면서 성접촉이 이루어졌다. 비교적 심각한 성접촉이라고 생각되는 가슴 만지기, 성기 만지기, 성 관계하기등의 단계에서는 양분화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접촉이 첫 번 만남부터 이루어지는 군과 10회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군과 비교적 높은 자아존중감의 점수를 나타내었으나, 2-9회 째의 만남에서 성접촉이 이루어지는 군은 첫날 접촉한 군과 10회 이상 접촉한 군에 비하여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내어 결과적을 만남의 횟수에 따른 자아존중감 점수는 U Shape을 띄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만난 첫날부터 성관계에 이르는 군과 10회 이상에서 성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여학생의 경우에는 자아존중감이 완만하게 떨어지지만 4-5회, 6-7회, 8-9회에 이르는 기간에 성관계에 이르게 되는 군일 경우에는 성관계 단계에서 급격히 평균값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다.

<표 11> 이성교제하는 실험대여학생의 만남 횟수에 따른 성접촉과 자아존중감의 평균값

n=6130

	안한 군	만남 횟수	2-3회	4-5회	6-7회	8-9회	10회 이상
	mean ($\pm$ SD)	mean ($\pm$ SD)	mean ($\pm$ SD)	mean ($\pm$ SD)	mean ($\pm$ SD)	mean ($\pm$ SD)	mean ($\pm$ SD)
손잡기	27.78 ($\pm$ 4.07)	27.21 ($\pm$ 4.08)	27.38 ($\pm$ 3.92)	27.24 ($\pm$ 4.20)	27.87 ($\pm$ 3.67)	26.86 ($\pm$ 4.11)	27.80 ($\pm$ 4.05)
어깨동무	27.69 ($\pm$ 4.03)	27.14 ($\pm$ 4.18)	27.16 ($\pm$ 3.97)	27.47 ($\pm$ 3.92)	27.00 ($\pm$ 4.06)	27.54 ($\pm$ 3.74)	28.00 ($\pm$ 4.09)
가벼운 뽀뽀	27.76 ($\pm$ 4.02)	26.78 ($\pm$ 4.24)	26.09 ($\pm$ 3.95)	26.94 ($\pm$ 3.95)	27.41 ($\pm$ 4.02)	27.10 ($\pm$ 3.95)	27.51 ($\pm$ 4.08)
키스	27.75 ($\pm$ 4.02)	26.71 ($\pm$ 4.31)	26.74 ($\pm$ 3.99)	26.83 ($\pm$ 3.75)	26.72 ($\pm$ 3.98)	27.02 ($\pm$ 4.01)	27.40 ($\pm$ 4.06)
가슴 만지기	27.53 ($\pm$ 4.01)	27.15 ($\pm$ 4.25)	26.16 ($\pm$ 4.15)	26.32 ($\pm$ 3.88)	26.64 ($\pm$ 3.83)	25.39 ($\pm$ 4.32)	27.67 ($\pm$ 4.11)
성기 만지기	27.50 ($\pm$ 4.05)	26.69 ($\pm$ 4.02)	26.59 ($\pm$ 5.51)	25.65 ($\pm$ 3.70)	26.82 ($\pm$ 3.24)	26.41 ($\pm$ 4.52)	27.47 ($\pm$ 4.00)
성관계	27.52 ($\pm$ 4.02)	26.67 ($\pm$ 4.03)	26.12 ($\pm$ 4.84)	25.12 ($\pm$ 3.73)	25.59 ($\pm$ 2.70)	25.08 ($\pm$ 4.27)	26.94 ($\pm$ 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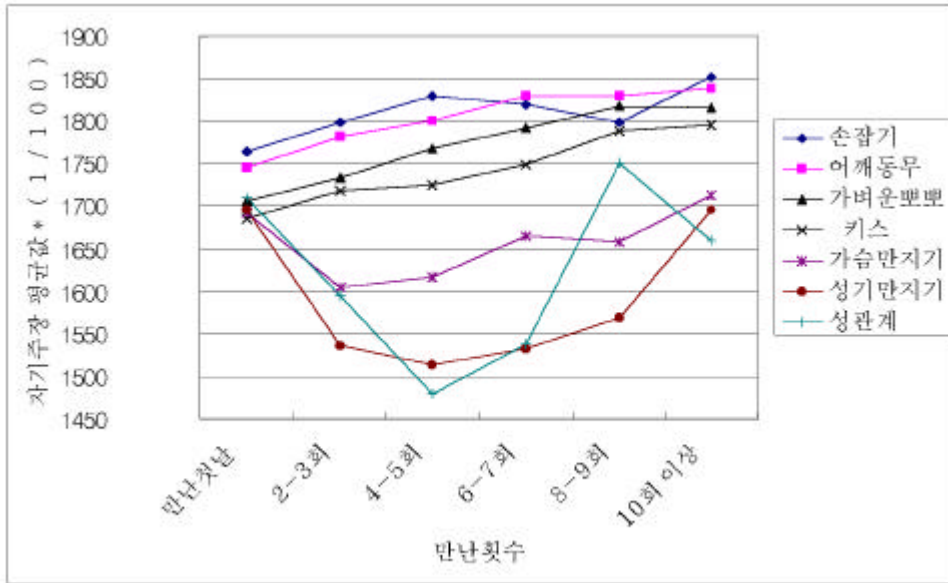
<그림 1> 이성교제하는 실험대여학생의 만남 횟수에 따른 성접촉과 자아존중감

2)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만남의 횟수와 성접촉에 따른 자기주장의 평균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만남의 횟수와 성접촉에 따른 자기주장 점수의 평균값으로 살펴보면 가벼운 성접촉이라고 생각되는 손잡기와 어깨동무를 10회 이상에서 접촉한 군은 성접촉을 안한 군보다 자기주장 점수가 높게 나왔다. 또한 자기주장이 높을수록 만남의 횟수가 반복되면서 손잡기, 어깨동무, 가벼운 뽀뽀, 키스를 경험하였고, 심각한 성접촉이라고 보여지는 성기 만지기, 성기 만지기, 성관계 경험의 경우에는 평균값이 양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 첫 번 만남부터 성관계를 한 그룹과 10회 이상에서 성관계한 그룹이 평균값이 2회에서 9회까지의 만남에서 성관계한 그룹에 비하여 더 높은 자기주장의 평균값을 보여 만남의 횟수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같은 U shape의 현상을 보였다.

<표12>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만남의 횟수와 성접촉에 따른 자기주장의 평균

n = 6130							
	안한 군	만남 첫날	2-3회	4-5회	6-7회	8-9회	10회 이상
	mean ($\pm$ SD)	mean ($\pm$ SD)	mean ($\pm$ SD)	mean ($\pm$ SD)	mean ($\pm$ SD)	mean ($\pm$ SD)	mean ($\pm$ SD)
손잡기	18.22 ($\pm$ 25.2)	17.64 ($\pm$ 2.62)	17.98 ($\pm$ 2.50)	18.29 ($\pm$ 2.39)	18.19 ($\pm$ 2.53)	17.98 ($\pm$ 2.20)	18.52 ($\pm$ 2.43)
어깨동무	18.33 ($\pm$ 2.57)	17.46 ($\pm$ 2.69)	17.82 ($\pm$ 2.54)	18.00 ($\pm$ 2.41)	18.30 ($\pm$ 2.22)	18.30 ($\pm$ 2.39)	18.38 ($\pm$ 2.39)
가벼운 뽀뽀	18.39 ($\pm$ 2.46)	17.06 ($\pm$ 2.73)	17.33 ($\pm$ 2.63)	17.67 ($\pm$ 2.59)	17.91 ($\pm$ 2.27)	18.18 ($\pm$ 2.30)	18.16 ($\pm$ 2.47)
키스	18.43 ($\pm$ 2.40)	16.86 ($\pm$ 2.78)	17.18 ($\pm$ 2.72)	17.24 ($\pm$ 2.70)	17.49 ($\pm$ 2.53)	17.88 ($\pm$ 2.32)	17.96 ($\pm$ 2.46)
가슴 만지기	18.25 ($\pm$ 2.42)	16.92 ($\pm$ 2.82)	16.04 ($\pm$ 2.80)	16.16 ($\pm$ 2.76)	16.65 ($\pm$ 2.63)	16.58 ($\pm$ 2.93)	17.13 ($\pm$ 2.69)
성기 만지기	18.14 ($\pm$ 2.46)	16.95 ($\pm$ 2.92)	15.36 ($\pm$ 2.84)	15.14 ($\pm$ 2.65)	15.32 ($\pm$ 3.22)	15.69 ($\pm$ 3.90)	16.96 ($\pm$ 2.60)
성관계	18.14 ($\pm$ 2.46)	17.10 ($\pm$ 2.84)	15.95 ($\pm$ 2.78)	14.80 ($\pm$ 3.09)	15.38 ($\pm$ 2.87)	17.50 ($\pm$ 2.61)	16.59 ($\pm$ 2.84)



<그림 2>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만남의 횟수와 성접촉에 따른 자기주장

3)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만남의 횟수에 따른 성접촉과 자아존중감의 그룹간 차이 분석

각각의 성접촉이 몇 번째 만남에서 이루어졌는가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평균값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ANOVA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성기 만지기만이 만남의 횟수에 따른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모든 항목은 유의도 .000과 .002로 자아존중감 평균값이 각각의 성접촉과 만남의 횟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이성교제하는 실험대여학생의 만남의 횟수에 따른 성접촉과 자아존중감의 그룹
간 차이 분석

			만남 횟수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손잡기	Between	Group	345.54	6	57.590	3.541	.002 [*]
	Within	Group	90844.58	5586	16.263		
	Total		91190.12	5592			
어깨 동무	Between	Group	458.05	6	76.341	4.698	.000 [*]
	Within	Group	89731.21	5522	16.250		
	Total		90189.26	5528			
가벼운 뽀뽀	Between	Group	781.99	6	130.331	8.021	.000 [*]
	Within	Group	87303.29	5373	16.249		
	Total		88085.28	5379			
키스	Between	Group	960.08	6	160.013	9.882	.000 [*]
	Within	Group	85625.39	5288	16.192		
	Total		86585.47	5294			
가슴 만지기	Between	Group	599.33	6	99.889	6.158	.000 [*]
	Within	Group	85339.42	5261	16.221		
	Total		85938.75	5267			
성기 만지기	Between	Group	187.32	6	31.220	1.918	.074
	Within	Group	85259.78	5239	16.274		
	Total		85447.09	5245			
성관계 하기	Between	Group	464.87	6	77.479	4.767	.000 [*]
	Within	Group	85060.77	5233	16.255		
	Total		85525.64	5239			

^{*}p≤0.05

4)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만남의 횟수에 따른 성접촉과 자기주장의
그룹간 차이 분석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만남의 횟수에 따른 성접촉과 자기주장의 차이 분석을 ANOVA로 검증해 보면 모든 성접촉 단계에서 다른 자기주장이 각각 .000으로 만남의 횟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4 >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만남의 횟수에 따른 성접촉과 자기주장의 그룹간 차이분석

		만남 횟수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손잡기	Between Group	370.71	6	61.79	9.64	.000*
	Within Group	280008.97	4370	6.409		
	Total	91190.12	5592			
어깨 동무	Between Group	490.28	6	81.714	12.797	.000*
	Within Group	27571.20	4318	6.385		
	Total	28061.47	4321			
가벼운 뽀뽀	Between Group	939.22	6	156.54	24.89	.000*
	Within Group	26242.82	4173	6.289		
	Total	27182.04	4179			
키스	Between Group	1251.38	6	208.56	33.367	.000*
	Within Group	25609.06	4097	6.251		
	Total	26860.45	4103			
가슴 만지기	Between Group	1515.30	6	252.55	41.21	.000*
	Within Group	24891.69	4062	6.128		
	Total	26406.9	4068			
성기 만지기	Between Group	1058.66	6	176.44	1.918	.000*
	Within Group	25008.90	4037	6.195		
	Total	26067.56	4043			
성관계 하기	Between Group	988.50	6	164.75	26.60	.000*
	Within Group	25002.97	4037	6.193	26.601	
	Total	25991.48	4043			

*p≤0.05

7.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과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과의 관계를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한 결과 0.155의 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0).

< 표 15>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과의 관계

		자아존중	자기주장
자아존중	Pearson Correlation	1.000	
	Sig. (2-tailed)	.	
	인수	5871	
자기주장	Pearson Correlation	.155(**)	1.000
	Sig. (2-tailed)	.000	.
	인수	4387	4557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제 5 장 논 의

본 연구의 결과로, 이성교제 과정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성접촉의 최종적인 성접촉 단계는 키스(1,634명, 26.7%)였다. 이는 이성교제를 하면서 성접촉을 하지 않는 군의 분포인 842명(13.7%)보다 더 많은 비율이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이성교제를 하는 여학생의 성교 경험률은 7.5%로 장순복 외(2000)에서 밝혀진 십대 여학생의 성교 경험률인 4.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성교제 경험이 있거나 이성교제 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성교 경험률이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5-24배 높다는 이양재 외(199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비율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심하지 않아 1.5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이할 만한 결과로 여학생의 이성교제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경험한 성접촉의 단계에서 성기 만지기 단계의 대상자는 없었는데, 이는 이 단계에 이르러서는 십대 여학생이 더 이상 성접촉을 멈추지 못하게 되어 성교 단계로 곧 이어지거나, 가슴 만지기 단계에서 더 이상의 성접촉이 진행이 되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으나, 만남의 횟수에 따른 성접촉의 분포의 결과를 살펴볼 때 성기 만지기과 성교의 시기가 서로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성기 만지기과 성교는 십대 여학생들에게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성접촉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이 시기의 십대 여학생들은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기 힘든 불안정한 시기에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설령 이성교제 과정에서 자신이 더 이상의 성접촉을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자친구의 요구를 거절하는 주장능력이 부족하여, 성접촉을 더 이상 멈출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여학생이 이성교제하는 과정에서 가슴 만지기까지의 경험을 한 여학생의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성교육과 자기주장 능력에 중점을 둔 교육을 통하여 더 이상 성접촉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거나, 만일의 경우에 우발적인 성교가 이뤄지더라도 추후에 있을 임신을 대비한 피임교육에 중점을 둔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성교제를 하는 십대여학생의 자아존중감 평균값은 $27.43(\pm 4.03)$ 점이었는데 이는 장순복 외(2000)의 연구에서의 전체 십대 여학생의 자아존중감 점수인 27.56

(± 4.10)보다 낮은 점수였고, 이성교제를 하지 않은 십대 여학생의 자아존중감 점수인 $27.67(\pm 4.13)$ 보다도 낮은 점수였다. 이성교제를 선택하는 청소년기에 그들의 발달과업 중에 하나인 이성교제를 하고 있거나 과거에 이성교제를 했었던 십대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더 낮은 것은 의외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성교제 과정의 경험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고찰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여학생의 성접촉을 분류해 보면, 성접촉이 진행됨에 따라 십대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보다 자세히 분류하면 이성교제를 하는 전체 여학생의 자아존중감 평균값인 27.43 보다 높은 점수를 가진 성접촉은 손잡기, 어깨동무, 가벼운 뽀뽀까지였고, 키스, 가슴 만지기, 성기 만지기, 성교의 성접촉은 이성교제하는 전체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의 평균값보다 낮은 자아존중감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성교제 과정에서 가벼운 뽀뽀까지의 성접촉은 오히려 십대 여학생의 높은 자아존중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키스를 경험한 군부터는 전체 여학생의 자아존중감 평균값인 27.43 보다 더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는데 이성교제하는 과정에서 여학생들이 경험하는 가장 많은 성접촉이 “키스” (26.7%, 1,634명)라는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의미있는 결과라고 보여진다. 즉, 이성교제하는 과정에서 십대 여학생들은 키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여학생들은 이것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아존중감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성교제하는 여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여학생들보다 더 자아존중감이 떨어진다고 보고한 장순복 외(2000)의 연구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게 되는 결과이기도 하는데 이성교제를 하였다고 해서 모두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접촉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다르며, 특히 키스를 중심으로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 점수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접촉을 전혀하지 않으면서 이성교제를 하는 십대 여학생은 이성교제하는 여학생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아존중감(27.83 ± 4.05)을 보여주었으며 십대 여학생의 자아존중감 평균값인 $27.56(\pm 4.10)$ 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청소년기에서 선택하는 이성교제를 하고 있으면서도, 성접촉을 하지 않을 때 십대 여학생들

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남의 시점에 따른 성접촉 결과를 보면, 의미있는 자료로 성기 만지기와 성관계의 성접촉이 첫 번 만남부터 이루어지는 비율(1.7%)이 두 번째로 많은 결과를 보였다.

Miller(1975)는 성이란 성적 긴장을 풀어주고 감각적 즐거움을 주고받는 것을 포함하고 가까이하고 싶은(closeness) 친밀감의 욕망이라 하였다(김혜숙, 1995, 재인용). 이성과의 만남이 진행됨에 따라 친밀감을 발단으로 한 이성교제 과정에서의 십대 성행위에도 여학생의 성건강을 위협하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친밀감이 형성되기도 전에 청소년들이 성관계에 돌입하게 되는 경우는 청소년 비행 수준에 가까운 행위로서 청소년에게 심리적, 신체적으로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자아존중감이나 자기주장 정도는 2-9회에 성관계를 경험한 군과 비교하여 높은 값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는, 청소년기의 성접촉 경험의 정도가 자기주장이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성교제 전에, 혹은 성장과정에서 이미 개인이 갖고 있는 자아존중감이나 자기 주장능력이 이성교제간의 성접촉 경험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즉 십대여학생의 성교, 키스 행위 등의 성접촉 자체가 자아존중감이나 자기주장에 손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접촉의 과정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능력에 바탕을 둔 자신의 의지 반영 여부가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의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로서 일상의 대화나 성격 면에 있어 개인의 사회적 행동과 역할을 결정하는 중심 특성이며, 구체적이고 일시적이기보다는 지속적인 개인의 자아평가와 관련이 있다(Coopersmith, 1981).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쉽게 변하는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인 준거집단을 통한 자기 평가를 통하여 서서히 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상호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성접촉 경험 여부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며, 역으로 자아존중감이 이성간의 성접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따라서 이성교제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접촉으로 인한 십대 임신, 낙태 등의 제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십대 여학생에게 이성과의 접촉 기회가 주어지기 이전부터 자신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즉 자아존중감이 금

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시도되어야 하며, 더불어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여 자신이 원치 않는 성접촉의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준비시키는 방향으로의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성접촉 초기 경험군의 높은 자아존중감이나 자기주장의 점수로부터 이들을 청소년 비행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만난 초기부터 자기 스스로가 자기주장을 하여 성교한 그룹으로서 자아존중감도 손상 받지 않는 상태에서 십대의 성·생식 건강 위험행위를 하고 있는 그룹으로 간주하여, 이성교제하는 십대 여학생 중에서 가장 집중적인 교육과 간호 중재를 필요로 하는 그룹이라고 볼 수 있다.

김진엽(1996)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문제 행동은 약물 사용, 음주, 흡연, 조속한 성 행동, 규칙 위반 등이 있는데 이를 실질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범죄와 지위비행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중에서 범죄란 살인, 강도와 같이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벌을 받아야하는 행위 일체이며, 지위비행은 음주, 흡연, 조기성교 등과 같이 어른들에게는 괜찮으나 청소년이란 지위 때문에 문제가 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중에서 지위 비행은 청소년 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성교 초기 접촉군의 행위는 청소년 지위 비행이라고 간주되며 이러한 사실은 십대 비행과 성행위의 중복성을 설명한 많은 연구가 뒷받침해 주고 있다(Huizinga, 1993; Miham, 1990; Rone, 1998; Seamark, 1998; 김태근, 1997; 함웅, 1985). 따라서 성교 초기 접촉 경험을 한 십대 여학생의 문제는 일반적인 이성교제 과정에 대한 중재보다는 십대 청소년의 비행 차원의 접근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Kaplan(1975)은 7학년 3천명을 대상으로 3년에 걸쳐 조사한 그의 연구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이 청소년 비행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한 개인이 자신의 소속집단에서 모욕, 멸시 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면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고 하였으며, 그렇게 낮아진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은 자신의 소속집단(가정, 학교, 또래집단)에 참여하는 것이 고통스러워지며, 그 결과 소속집단의 규범에 동조하지 않으려 하는 반규범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자

자아존중감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동기(self esteem motive)가 계속 좌절되고 있음을 느끼지만 규범의 동조를 통해서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일탈적인 행동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이런 구조에서 청소년은 다른 비행 청소년들에게 인정과 지지를 받으면서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유형의 비행 및 문제행동 등이 자신이 그간 겪어 왔던 무력감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줌과 동시에 용기, 기술 등을 과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비행청소년은 비행청소년 집단의 준거 집단으로 여기며 그들의 평가와 지지에만 의존하게 되고, 더 이상 교사, 부모, 학교 급우들의 평가나 인정에는 신경을 쓰지 않게 되므로써 자아존중감을 손상 받을 여지도 줄어들게 된다(Rosenberg & Kaplan, 1982). 이로 인해 청소년의 비행은 자아존중감을 위협당하는 상황의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반항행동으로 시작되며, 그 과정에서 비행 청소년들은 손상된 자아존중감이 회복되는 반대급부를 얻으면서 그 과정이 확대 재생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관계 조기 접촉 그룹은 일상에서의 탈피와 일탈적 도래 그룹의 평가적 준거 집단의 압력으로 인한 충동적인 성관계를 갖고, 부모, 교사, 학급급우들의 평가에 신경을 쓰지 않으므로 자아존중감을 손상받을 여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자아존중감의 증가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아진다. 십대여학생의 무모한 성행위는 후속적인 임신, 낙태, 성병 등의 성·생식보건의 문제의 발단이 되어 사회적으로 고립되며, 자아존중감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삶에 치명적인 상처의 원인이 된다. 성관계로 인하여 파급되어 올 수 있는 가까운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지 못함으로 인한 성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룹의 성교육은 비행 청소년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이나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과 더불어 보다 더 적극적인 다른 차원의 간호학적 중재를 필요로 하는 그룹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의 상관관계에서는 유의도 .000으로 높은 상관성을 보였는데, 이로 인해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Fensterheim & Baer(1997), 임승규(1997), Galassi & Delo(1974)의 주장이 지지되었고, 더불어 장순복(2000)이 개발한 원치 않는 성접촉 시에 십대 여학생이 거절을 하는 능력을

측정한 7개 문항의 자기주장 도구의 타당성이 통계적으로 증명되었다.

우리가 흔히 성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성생식 관련한 신체적 문제가 없어야 하고, 성·생식 관련 주제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느껴야 하며, 자신이 여성이라는 점과 남성이라는 점에서 편안하게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성적 존재로서의 자부심이 있어야 하고, 성 관련 제반 상황에 노출될 때에 성적인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자율성이란 성과 관련하여 원치 않는 상황에 노출될 때 자신의 느낌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며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을 때 성적인 건강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박영숙 외, 1999). 따라서 이성교제하는 여학생들의 성접촉에 따른 성 생식 문제의 예방 차원의 성교육 내용으로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며, 동시에 자아존중감의 배양 역시 십대여학생의 성교육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임이 본 연구에서 드러났다. 특별히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십대 여학생의 성교와 임신에 초점을 맞추는 문제중심적인 연구가 아니라 굳이 성교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대다수의 여학생이 경험하는 이성교제 과정과 청소년이 그 과정에서 너무도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여러 단계의 성접촉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이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임신, 낙태등의 문제 중심적 접근보다는 여학생의 삶의 질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변인에 대한 고찰을 시도함으로써 모든 여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중재요인을 찾은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단위로부터 체계적, 계통적으로 표본추출한 가운데 도출된 자료로서 우리나라 십대 여학생에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연구결과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사춘기에 접어든 여학생들에게 이성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능력 배양을 위한 성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며, 여학생이 경험한 성접촉의 단계에 따라서 십대여학생들에게 차별적이고 실질적인 성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제 6 장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십대여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 정도에 따른 성접촉 경험의 정도를 조사함으로써 십대여학생들의 이성교제에 대한 성교육 지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은 우리나라 대도시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인천등의 7개 도시와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의 9개도 지방의 254개교에 다니는 12,733명의 십대여학생 중 이성교제 중에 있거나 과거에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십대여학생 6,1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이성교제시 성접촉 경험에 관한 7문항, 자아존중감에 관한 문항 10문항, 자기주장에 관한 문항 7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32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0년 10월 2일부터 10월 28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우편을 이용한 질문지 자가 보고법이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PC용 SPSS 10.0 Program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범위 등의 서술통계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주장능력, 신체적 성접촉 정도의 차이 검정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추후 검사로 Duncan method를 통하여 유사한 성접촉을 분류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이성교제 과정에서 여학생이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성접촉은 키스(1,634명, 26.7%)였다. 심각한 성접촉이라고 생각되는 가슴 만지기와 성기 만지기, 성교하기는 817명(13.4%)로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성교제 과정에서 성접촉을 안 하는 군은 842명(13.7%)에 불과하였고, 이성교제를 하는 여학생의 성교 경험율은 458명(7.5%)였다.

2. 성접촉이 만남의 어느 시기에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분포는 만남 첫날에 1,950명 (31.8%)이 손을 잡았고, 어깨동무는 2-3회에 1,367명(22.3%)이 접촉하였다. 그 외의 가벼운 뽀뽀, 키스, 가슴 만지기, 성기 만지기, 성관계는 10회 이상에서 각각 12.8%, 12.9%, 4.2%, 1.9%, 2.3%로의 분포로 10회 이상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기 만지고와 성관계를 경험한 그룹은 만남 첫날부터 경험한 군이 두 번째로 많은 빈도(1.7%)를 보여주었다.
3. 이성교제하는 십대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의 평균값은 27.43 ± 4.03 이었고 자기주장 평균값은 17.96 ± 2.55 였다.
4. 이성교제시 성접촉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정도를 보면 성접촉이 진행될 수록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의 평균값이 떨어졌고 각 접촉 단계에 따른 그룹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0$).
6. 성접촉 경험의 시기에 있어서 만남의 횟수에 따른 자기주장과 자아존중감의 평균값을 살펴본 결과 손잡기와 어깨동무의 경우 만남의 횟수에 따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가벼운 뽀뽀, 키스까지의 성접촉을 한 경우에는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 점수가 높을수록 만남의 횟수가 반복된 후 늦게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심각한 성접촉이라 생각되는 가슴 만지기나 성기 만지기, 성관계를 경험한 군의 경우는 만남 첫날 경험한 군과 10회 이상에서 경험한 군의 자아존중감이나 자기주장정도가 2회에서 9회 사이에 경험한 군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 U shape의 현상이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은 십대 여학생의 성접촉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증명되었고($p=0.000$, $p=0.000$), 여학생의 올바른 이성교제를 위한 성교육 내용으로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및 자기주장 훈련이 포함되어야하며 성접촉에 따라서 여학생에게 차별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십대여학생들이 이성교제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성접촉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다룸으로서 차별화된 성교육과 올바른 이성교제에 지침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2. 청소년이 초기 성교에 이르게 되는 여러 가지 관련 요인 중에서 사회 심리적 변수를 이용하여 청소년에게 중재 가능한 요인을 밝혀 내었다.
3. 인문, 실업, 주간, 야간, 남녀공학, 여학교, 도시, 지방 및 제주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역에 걸친 자료수집을 통하여 대표성있는 연구결과를 보여 주었다.

2. 제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1. 10대 여성의 임신실태 및 예방 대책의 대단위 조사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에서 분석한 결과로서 설문지가 길어질 것을 염려하여 보다 문항이 자세한 자아존중감 도구나 원치 않는 성접촉시에 거절할 수 있는 자기주장 도구와 병행하여 일반적인 자기주장 도구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개념의 대표성이 떨어질 염려가 있다.
2. 한국의 십대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성 있는 표본 추출을 위하여 다단계 집락 표출법을 이용하였으나 완전 무작위 표출법에 비하여 대표성에 제한점이 있다.
3. 우편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각 학교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고위험 집단이라고 생각되는 야간 고등학교의 질문지 수거 비율이 1.2%에 그치는 등 학교차원의 협조 여부에 따른 회수율에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점이 있다.
4. 십대여학생들이 학교에서 담당 선생님의 지도하에 작성한 설문지로서 성관련 경험에 관한 질문지에 솔직하게 응답하였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
5. 만남의 횟수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의 점수는 평균과 분산 분석을 통한

차이점정만 있을 뿐이므로, 추가적으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십대 여학생을 위한 성교육 내용으로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 및 자기주장 훈련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십대 여학생의 이성교제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접촉 경험에 따라 여학생들에게 차별화된 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각각의 단계에 따른 성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3. 만난 첫날 성교를 경험한 군인 102명(1.7%)의 여학생의 일반적인 특성 및 다른 변수를 찾는 후속 연구가 이어져 이들을 위한 차별화된 중재 접근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4. 십대 이성교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질적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5. 같은 연구를 남학생에게도 실시하여 청소년기의 이성교제에 대한 남녀의 차이를 비교 연구하여 성교육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6. 만남의 횟수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능력의 평균값에 나타난 유의성 검증을 위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태순(1993). 여고생의 이성교제, 성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병삼, 이찬, 신재철, 감탁, 송준, 홍명호, 박영주(1996). 십대 여성성에 관한 연구. 대한 산부인과 학회지, 39(6), 1007- 1016.
- 구병삼외 (1995). 여성의 성경험 조사연구자료의 한국 교육 신문(1996, 7, 17) 재 인용
- 김상원(1995.)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전한 성문화 정착 방안과 바람직한 성교육 방향. 청소년 성문제 대처방안에 대한 세미나 자료집. 성문화 연구소
- 김상원(1996). 남자고등학생의 성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 성문화연구소.
- 김성희(1984). 주장행동의 요소. 학생지도연구, 17(1). 경북대학교 학생 생활 연구소.
- 김승목(1996).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 청소년 성 문제 대처방안에 대한 세미나 자료집. 성문화 연구소.
- 김언희(1992). 여고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 요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 김영희(1992). 청소년의 성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옥(1993). 울릉군 청소년들의 성의식, 실태조사 연구. 가정생활 연구.
- 김종희(1991). 중학교 십대 여학생의 성지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 김준호(1995). 성역할 정체성과 여자 청소년 비행. 한국 사회학회, 29(1), 223- 228.
- 김진엽(1996). 고교생의 문제행동 및 동기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태근(1997). 청소년의 성의식, 성행동과 비행의 관계-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혜숙(1995). 인간과 성. 서울: 에드텍.
- 미태순(1994). 여고생의 이성교제, 성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문일(1998). 미혼모 임신의 문제점 및 예방. 한국 모자보건학회 제 3차 학술대회 연제집. 서울: 한국 모자보건학회.
- 박영주(1998). 한국 십대 여성의 임신, 낙태 및 출산 경험실태, 대한간호학회, 28(3), 573-582.
- 박영숙 외(1999). 현대여성의 건강생활. 서울:현문사.
- 성문화 연구소(1996). 청소년의 성교육-사회적인 면-. 성교육 지침서 자료집.
- 신종순(1990). 고등학생의 문제행동과 자아 존중감과의 관계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심영옥(1983). 폐결핵 환자의 자아개념과 건강신념이 치료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 연세 대학교 대학원.
- 심현옥(1994). 학령기 및 청소년기 당뇨병환자의 자아 존중감과 자기간호와의 상관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 안창선(1993). 한국 십대의 성적 태도와 행동에 관한 조사연구. 춘천 교육대학교 학생 생활 연구소.
- 안창선, 김현옥(1991). 학교 성교육. 서울: 교육 과학사.
- 유영남(1987). 심리적 준거 집단에 대한 자아 존중감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가현(1998). 성문화와 심리. 서울: 학지사.
- 이경혜(1995). 여성건강에 대한 개념 분석 연구. 여성건강학회지, 1(2), 222-233.

- 이상은(1999). 고등학교 혼전 순결에 대한 태도 및 음란 매체 경험 조사. 학교보건 연보 29호. 서울시 학교 보건원.
- 이숙경(1993). 미혼여성의 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승열(1999). 자기주장훈련이 고교생의 우울 수준과 자살관념 감소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양재 외(1997). 여고생의 성의식 및 성실태 조사연구. 서울: 성문화 연구소
- 이양재, 김수련, 송은일, 서정애, 오윤경(1998). 여고생의 성 경험 및 혼전 성 관계 허용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전국 실업계, 인문계 여성을 중심으로-. 서울: 성문화 연구소.
- 이양재, 외(1998). 미혼 성인의 성의식 및 성행태 조사연구. 서울; 한국 성문화 연구소.
- 이유정(1995). 고등학생의 성태도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 영남 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인섭(1987). 학생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의 성태도에 관한 비교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인숙(1994). 일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 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 이인순(1990). 주장훈련이 간호학생의 주장행동, 자아 존중감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 이장호(1992). 상담심리입문. 서울: 박영사.
- 이찬(1996). 한국여성의 성 행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 임승규(1999). 소아 당뇨인의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자기주장훈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 임용자(1987). 근로 청소년의 성적 갈등에 관한 조사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 대학원.
- 장순복, 김소야자, 한인영, 박영주(2000). 십대 여성의 임신실태 및 예방대책.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장순복, 이양재, 박순정, 송은일, 서정애, 서정애, 오윤경(1998), 대학생의 성행태 조사연구. 한국 성문화 연구소.
- 전병재(1972). 자아개념 이혼에 관한 고찰. 인문 과학, 연세대학교 인문연구소, 107-108.
- 정문숙(1991). 성교육이 여고생의 성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의대지, 32(2),
- 정찬석(1997). 자아 존중감 증진프로그램의 효과-경미한 비행을 보이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
- 조정아, 조혜순(1991). 새로 쓰는 성 이야기: 직장에서의 성적 폭력. 또하나의 문화, 제 8호, 108-139.
- 주기종(1996). 보건 복지 사업을 통한 청소년 성교육 활성화 및 성폭력 추방대책. 청소년 성 문제 대처방안에 대한 세미나 자료집. 서울: 성문화 연구소.
- 최수일(1996). 대중매체가 중학생의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연순 외 8인(1999). 여성건강간호학 I II. 서울; 수문사.
- 최옥숙(1992). 여고생의 성의식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 대학원.
- 최일성 역(1996). 소신있는 자기주장법. 서울: 열린 세상.
- 한국성폭력 상담소(1998). 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 자료집. 서울: 한국 성폭력상담소.
- 한옥자(1999). 전국 대학 보건간호사회 보수 교육 자료.

- 한인영(1998). 미혼모 발생현황 및 미혼모 복지의 방향, 한국 모자보건학회 제 3 차 학술대회 연제집.
- 함웅(1985). 성의식 구조 및 행동양식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 홍경자(1996). 청소년 집단상담. 청소년 대화의 광장. 22-23.
- 홍원호(1995). 남고생의 이성교제와 성의식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 Alberti, R. E., & Emmons, M. L.(1982). Your perfect right(4th). San Luis Obispo, CA: Impact.
- Argyle, M.(1972). Self-image and Self -esteem. The Psychology of International Behavior. England: Harmond Sworth. 42-53.
- Atwarter, E.(1992). Adolescence. Englewood Cliff, NewJersey: Prentice Hall
- Cavajal, S. C., Parcel, G. S., Banspach, S. W., & Coyle, K. K.(1999). Psychosocial predictors of delay of first sexual intercourse by adolescents. Health Psychology, 18(5), 443-452.
- Claire Brindis(1999). Building for the future: Adolescent pregnancy prevention. Journal of Americal Medical Womens Association, 54(3), 129-132.
- Coopersmith, S.(1959). A method for determining types of self-esteem.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87-94.
- Davis, R. L., Tollestrup, K. & Mihams, S.(1990). Trends in teenage smoking during pregnancy. Washington State: 1984 through 1988. Americal Journal of Disease Child, 144, 1297-1301.
- Dickson, N., Paul, C., Herbison, P. & Silva, P.(1998). First sexual intercourse: age, coercion, and later regrets reported by a birth cohort : BMJ, 316(7124), 29-33.

- Elkind, D., & Weiner, I. B.(1978). Development of the child. New York :Johnwily & sons Inc.
- Fensterheim, H., & Baer, J.(1975). Don't say yes when you want to say no. New York: Dell Publishing Co.
- Fischer (1996). Deceptive, verbally coercive college males. Attitudinal predictors and lies told. ASB, 25, 527-533.
- Galassi, M. D., & Galassi, J. P.(1977). Assert Yourself ! : How to be your own person, New York: Human Sciences Press.
- Garlick, R., Ineichen B., & Hudson, F.(1993). The UPA score and teenage pregnancy. Public Health, 107, 135-139.
- Gorden, D.(1969). Self- conceptions methodologie, Journal of Nervous & Mental Disorders, 148, 328-364
- Gorden, S., Scales, P., & Every, K.(1979). The sexual adolescent; Communicating with teenagers about sex. North Scituate Mass: Duxbury.
- Greenberg J., Magder, L., Aral, S.(1992). Age at first coitus.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19(6), 331-334.
- Guggino, J. M., Ponzetti, J. J. Jr.(1997). Gender difference in affective reaction to first coitus. Journal of Adolescence, 20(2), 189-200.
- Herson, M. & Bellack, A. S.(1976). 'Social skills training for chronic psychiatric patients: rationale, research finding and future directions" Comprehensive Psychiatry, 17(4), 559-580.
- <http://myhome.shinbiro.com/-grisim/home/sung4.html>
- Huizinga, D., Loeber, R., & Thornberry, T. P.(1993). Longitudinal study of delinquency, drug use, sexual activity and pregnancy among children and youth in three cities. Public Health Reports, 108(1), 90-96.

- Joyce, Abma., Anne, Driscoll., & Kristin, Moore.(1998). Young Women's Degree of Control.
- Kaplan, & Howard, B.(1975). Sequelae of self- derogation: predicting from a general theory of deviant behavior: Youth Society, 7(2), 171- 197.
- Kinsey, A., Pomeroy, W., & Martin, C.(1948). Sexual behavior in the human male. Philadelphia: Saunders.
- Kinsman S. B.(1998). Early sexual initiation: the role of peer norms. Pediatrics, 102(5), 1185- 1192.
- Marian, F., MacDorman, Ph D., Jonnae, O. & Atkinson, M. S.(1999). Infant Mortality statistics from the 1997 period linked birth/infant death data set. National viatal statistics report, 47(23), 1-9.
- Maslow, A. h.(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 Harper.
- Miham, S. Davis, R. L., Tollestrup K.(1990). Trends in teenage smoking during pregnancy, Washington state: 1984 throuh 1988, American Journal of Disease Child, 144, 1297- 1301.
- Moore N. B., & Davidson, J. K. Sr. (1997). Guilt about first intercourse an antecedent of Sexual dissatisfaction among college woman.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23(1), 29-46.
- Nancy, D. Kellogg, Thomas, J. Hoffman, Elizabeth, R. Taylor.(1999). Early sexual experiences aiming pregnant and parenting adolescents. Adolescence, 34(134), 293-303.
- Nathaniel, H. Murdock.(1998). Teenage Pregnancy. Journal of national medical association, 90(3), 135- 136.
- Papenfuss, R. L., Curtis, J. D., Beier, B. J. & Menze, J. D.(1983). Teaching positive self concepts in the classroom. Journal of School Health, 53, 618-620.

- Paplau, L., Rubin, Z., & Hill, C.(1977). Sexual intimacy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Issue, 33, 86-109.
- Rakos, R. F., & Schroeder, H. E.(1979). Development and empirical evaluation of a self-administered assertiveness training program. Journal of Counsell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5), 991-993.
- Reasoner, Robert. W.(1994). Self-esteem as an Antidote to Crime and Violence. ERIC Document Reproduuction Service No. ED, 373-281.
- Rennie, Fritchie., & Maggie, Melling.(1991). The Business of assertiveness, 최일성 역. 서울: 열린세상.
- Rogenberg, M., & Simmons, R. G.(1971). Black and White self-esteem, The urban school child, Washington, Ros Monograph series,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1-10.
- Rogenberg, M., & Kaplan, H. B.(1982). self -attitude and deviant responses, in Social Psychology of the self oncept, Arlington Heightes II, Harlan Davison Inc, 452-462.
- Rogenberg, Morris.(197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Conceiving the self. NewYork: Basic Book, Inc.
- Rone E. S., Rybicki, L. A., & Durant R. H.(1998). Pregnancy and other Risk Behaviors Among Adolescent Girls in ohio.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2, 50-55.
- Rosenthal, D. A., Smith, A. M., & de Visser, R.(1999). Personal and Social factors influencing age at first sexual intercourse. Achives of Sexual Behavior, 28(4), 319-333.
- Seamark, C. J., Denis, J. P. Gray(1997). Like mother, like daughter: a general practice study of maternal influences on teenage pragnancy . British journal of General Practice, 47. 175-176.

- Seamark. C. J., & Gray D. J.(1998). Teenager and risk-taking: pregnancy and smoking. British Journal of General Practice, 48(427), 958-986.
- Spitz A. M., Ventura, S. J., Koonin, L. M., Strauss, L.T., Frye, A., Heuser, R., Smith J. C., Morris, L., Smith, S., Wingo, P., & Marks, J. S.(1993). Surveillance for Pregnancy and Birth rates, among teenager, by State United, 1980- 1990. MMWR, 42(556), 1-27.
- Wakin, D.(1978).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self esteem measuring instru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2, 171-182.
- Wood K., Maforth, F., Jewkes, R.(1998). "He forced me to love him": Putting violence on adolescent sexual health agenda. Soc. science. Med., 47(2), 233-242
- Wyatt, G., Durvasula, R. S., Guthrie, D., LeFranc, E., & Forge, N.(1999). Correlated of Sexual Behavior. 28(2), 139-57.

< 부 록 >

< 여학생의 이성교제 질문지 >

I 다음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솔직히 답해 주십시오.



1. 나의 학년? ☐ 중3 ☐ 고1 ☐ 고2

2. 재학중인 학교는?

☐ 인문계 고등학교주간 ☐ 인문계 고등학교

☐ 실업계 고등학교주간 ☐ 실업계 고등학교야간

3. 나의 학교? ☐ 남녀공학 ☐ 여학교

4. 나의 나이 만 세

5. 나의 거주지 시, 혹은 도 군

6. 함께 사는 사람

☐ 가족 ☐ 하숙/ 자취 ☐ 기숙사 ☐ 보호시설 ☐ 친척 ☐ 기타.....

7. 귀하는 왕따가 되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 없다 ☐ 있다 ☞ 기간.....(주)

8. 귀하는 현재 남자친구(애인)가 있습니까?

☐ 있다 ☐ 없다 ☐ 과거에 있었다 ☐ 이성교제 경험이 없다

II. 귀하에 대해 느끼는 대로 적어 주십시오.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그렇 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 만큼은 가치있는 사람이다.				
* 나는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갖고 있다.				
*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 나는 필요한 일은 남들이 하는 만큼 할 수 있다.				
* 나는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				
* 나는 나 자신에 만족한다.				
*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나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 나는 내가 전혀 유능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III. 귀하는 남자(친구)가 원하지 않는 접촉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 다	가끔 그렇다	그렇지 않다	경험한적 없다
* 남자 친구의 요구에 응해준다				
* 남자친구가 원하는대로 내버려 둔다				
* 싫다고 말 할 수 있으나 못하게 할 순 없다				
* 싫으면 끝까지 못하게 할 수 있다				
*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				
* 현재 나의 기분을 말한다				
* 유머 ·장소이동 ·관심전환으로 분위기 바꾼다				

IV. 귀하의 이성교제시 평균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안했다	했다						
		만난 첫날 부터	2-3 회 만났을 때	4-5 회 만났을 때	6-7 회 만났을 때	8-9 회 만났을 때	10 회 이상 만났을때	기타
①손잡기								
②어깨동무								
③가벼운뽀뽀								
④키스								
⑤가슴만지기								
⑥성기만지기								
⑦성관계하기								

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Sexual Contacts and Self-Esteem, Self-Assertiveness of Teenage Girls Who Have or Had Boyfriends.

Lee Sun Kyoung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is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that aime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sexual contacts during the dates and psycho-social factors in teenage girls who have or had boyfriend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contacts and self-esteem and self-assertiveness .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6,130 teenage girls who have or had boyfriends. They were selected conveniently 12,733 teenage girls from 254 secondary schools located in 7 large cities and 9 provinces in Korea.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used it included items one general characteristics, the levels of sexual contacts, self-esteem and self-assertiveness.

Seven levels of sexual contacts were rated they were holding a hand, putting arms around each other's shoulders, kiss, french kiss, touching breast, petting genitalia, and sexual intercourse during the dates. Self-esteem and self-assertiveness were measured by the "Self-esteem scale" of Rogenberg (1971) and the questionnaires developed by S. B. Chang et al(2000), respectively.

The self-reporte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October 2, to October 28, 2000 and analyzed by using SPSS 10.0 Program.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One-way ANOVA with Duncan method & Scheffe metho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1. An average Percentage of the respondents who have (46.1%) or had (53.9%) boyfriends was 48.1% (n=6,130) and the most common sexual contact during the dates was french kiss (26.7%, n=1,634). While 7.5%(458) of respondents had a sexual intercourse, 13.7%(842) of respondents didn't have any sexual contact during the dates.

2. Distribution of starting point of the first sexual contact demonstrates that 1,950 respondents (31.8%) held partner's hand at the first date and 1,367 respondents (22.3%) put arms around each other's shoulders at the 2nd or 3rd date. Sexual contacts such as kiss, french kiss, touching breast, petting genitalia, or sexual intercourse were experienced mostly at the later than the 10th date. However, surprisingly large number(1.7%) of respondents had genital contact and sexual intercourses at the first date.

3. The means of self-esteem and self-assertiveness scores of the respondents who have or had boyfriends are 27.43(± 4.03) and 17.96(± 2.55),

respectively. The range of scores for self esteem was 10-40, 40 with most self esteem. The range of scores for self assertiveness was 7-21, 21 with most self assertiveness.

4. As sexual contacts proceeded, the means of self-esteem and self-assertiveness values decreased. In detail, the respondents having no or light sexual contacts (kiss, putting arms around each other's shoulder, holding a hand) had similar self-esteem values($p \leq 0.05$). However, ones having relatively intensive sexual contacts (french kiss, touching breast) showed significantly lower self-esteem values($p \leq 0.05$). Same trend has been obtained for self-assertiveness value.

5. The higher values of self-esteem and self-assertiveness values the respondents had, the later they started the moderate sexual contact (kiss, french kiss) during the dates. Interestingly, among the respondents having intensive sexual contacts (petting genitalia, sexual intercourse) during the dates, those who experienced the such contacts at the first date or later than 10th date have higher self-esteem and self-assertiveness values than ones experienced the such contacts during the 2nd 9th dates, giving U-shape curve.

6.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elf-assertiveness in girls who have or had boyfriends($P < .001$).

In conclusion, the research shows that self-esteem and self-assertiveness values are significantly related with the sexual contacts of the teenage girls who have or had boyfriends. These results strongly suggest that proper sex education program for teenage girls should contain the program on

improving the self-esteem and self-assertiveness. We believe that sex education program is the one of the best ways to prevent the unwanted sexual contacts and pregnancy of teenage girls.

Key word: teenage girls, dates, the level of sexual contacts, self-esteem, self-assertiveness